

평택지역 마을과 민속문화의 활용

김해규(평택·지역문화연구소장)

1. 머리말
2. 평택지역의 마을과 마을연구
3. 평택지역 민속의 분포와 특성
4. 평택지역 민속의 활용
5. 맺음말

1. 머리말

2000년대 이후 마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학계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을이 갖고 있는 역사와 문화, 주민들의 삶과 기억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것은 위로부터 역사쓰기에서 탈피하려는 일련의 노력과도 관련이 있다.¹⁾

‘마을은 박물관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만큼 마을 안에는 오랜 역사와 다채로운 삶과 기억이 존재한다. 하지만 마을의 중요성에 비해서 마을 연구는 미진한 상태다. 대체로 역사학이나 민속학, 인류학, 지리학, 사회학 계통의 연구가 많았는데, 역사학 계통의 연구 성과는 타 분야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것은 중앙사, 지배층의 역사, 문헌사 중심으로 연구해 온 한국의 근·현대 역사학의 한계이기도 하다.

마을과 마을문화 연구는 문헌사료만으로는 힘들다. 그것은 마을이라는 공동체의 역사는 관변자료나 신문사료 등 일련의 문헌사료에 거의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읍지나, 지리지 또는 민장문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들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미흡하다. 그래서 마을연구는 제한적 문헌사료와 함께 일기류나 민간에서 전승된 사료, 주민들의 다양한 경험과

1) 구술사에서는 지금까지의 역사쓰기는 국가나 지배층이 생산하고 전승한 문헌사료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근대 역사학이 객관적이라고 주장했던 문헌을 통한 역사쓰기는 지배층의 시각과 입장에서 쓰는 역사쓰기에 다를 아니라고 말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것이 구술사이며, 구술사는 국가와 지배층이 주도하였던 역사쓰기에서 피지배층의 입장 그들의 체험과 기억을 구술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기록하는 아래로부터의 역사쓰기라고 주장한다.(한국구술사연구회, 『구술사-방법과 사례』, 선인, 2005, 23~27쪽)

기억을 채록한 구술사료가 무척 중요하다. 이 같은 제한 때문에 마을을 연구하려면 마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을 안에서 사료를 수집하고, 구술을 채록하며, 녹취하고, 해제하는 수고가 있어야만 마을의 역사상이 오롯이 그려진다.

평택지역은 3개 읍(邑), 6개 면(面), 13개 행정 동(洞), 107개 법정 리(里), 약 600여 개의 행정 리(里)로 형성된 도농복합도시다. 지리적으로는 한반도의 중서부에 속했으며, 구릉이 적고 평야가 넓다. 서쪽으로는 내륙문화권과 아산만에 접해 있는 해양문화권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근대 전후에는 내륙 깊숙한 곳까지 바닷물이 유입되고 조운과 포구상업이 발달하여 내륙인데도 내륙문화와 해양 문화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²⁾

본고는 평택지역 마을과 민속연구 현황을 소개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쓰여졌다. 평택지역의 마을과 민속조사는 비교적 이른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를 거치며 이뤄졌다. 하지만 연구 성과에 대한 체계적 정리와 활용방안 모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평택지역의 마을연구 현황과 민속 문화의 분포 및 특성을 설명하고, 현재 활용되고 있는 민속 문화를 설명한 뒤 사라져가는 민속 문화의 효과적인 전승 및 활용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타 지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려고 한다.

2. 평택지역의 마을과 마을연구

평택지역은 한반도의 가장 서쪽에 위치하여 구릉과 평야가 발달하였다. 구릉은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서쪽으로는 저습한 평야가 많다. 서쪽 끝자락은 아산만과 인접하였으며, 근대전후에는 아산만과 안성천, 진위천 수로를 중심으로 수로교통이 발달하였다.

평택지역의 구릉들은 해발고도도 최고 200m에서 최저 10m내외로 다양하다. 대표적인 산으로는 무봉산(208.6m), 덕암산(해발 164.5m), 팔용산(122.2m), 태봉산(158.2m), 백운산(192m), 부락산, 오봉산, 고등산, 마안산, 자미산, 비파산을 꼽을 수 있다.³⁾

하천은 큰 하천으로 안성천과 진위천, 발안천이 있고, 그 지류로 오산천, 황구지천, 도대천, 통복천, 소사천 등 34개의 크고 작은 하천이 흐른다.⁴⁾ 하천으로는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여 아산만으로부터 조수(潮水)가 드나들었

2) 근대 이후까지 내륙문화와 함께 해양문화가 함께 발달했던 서평택지역에서는 마을제에서 산신제와 풍어제 전통이 함께 나타나며, 두레조직과 함께 뱃고사의 전통도 존재한다.

3) 경기도, 『삼남길·의주길 연구』, 경기옛길 삼남길·의주길 개발 및 활용보고서1, 2014, 71~72쪽

4) 경기도박물관, 위의 책, 142쪽

다. 이에 따라 하천 변에는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나루와 포구가 발달하였고, 포구상업을 비롯하여 제염업이나 수산업도 발달했으며, 포구마을도 형성되었다.

평택평야는 조선시대 궁방전이나 역둔토 등으로 간척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여⁵⁾, 일제강점기를 거쳐 한국전쟁 뒤 월남피난민들과 각 지역에서 올라온 빈농들에 의해 간척되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었다. 하지만 간척된 경작지는 안성천, 진위천 수로를 통해 유입되는 조수(潮水)에 의한 수해와 염해, 침식작용으로 경작의 어려움을 겪었고 생산력이 매우 낮았다. 그러다가 1974년 아산만과 남양만 방조제가 준공되면서 가뭄과 홍수, 해일, 침식의 피해가 없는 비옥한 농업지대가 되었다.

평택지역의 마을은 구릉지대의 마을과 평야 및 해양지역의 마을들로 구분할 수 있다. 구릉지대는 대체로 서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평야 및 해양지역은 서남부지역에 분포하였다. 구릉지대의 마을들은 대체로 역사가 오래되고 민속 문화가 풍부하다. 그것은 인간의 생산활동과 정착생활이 바다나 강가에 인접한 구릉지대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평야지대의 마을들은 근대 전후 간척에 의해 형성된 마을들이다. 이들 마을은 형성시기가 짧고 성씨도 다양하며, 삶의 조건도 구릉지대와 판이하게 달랐다. 안성천 하류와 아산만에 접한 해양지역의 마을들은 어업 또는 반농반어의 마을들이 많다.

구릉지대에는 수백 년 내력을 간직한 반촌(班村)이나 집성촌이 많으며 경제적으로는 계곡 사이의 전통적 경작지를 중심으로 논농사와 밭농사가 고루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 민속적으로도 당제나 산신제가 발달하였으며, 줄다리거나 거북놀이같은 전통적 민속놀이가 발달하였다. 대표적인 마을로는 무봉산 자락인 진위면 봉남리, 가곡리, 동천리와 마산리를 비롯한 태봉산 자락의 마을들, 덕암산 자락인 도일동, 부락산 남쪽의 동령마을과 장안마을, 북쪽의 송북동 우곡마을, 그밖에도 부용산 남쪽의 팽성읍 객사리, 고덕면의 좌교리, 해창리, 오성면의 양교리, 죽리, 안중읍의 용성리 일대, 포승읍 대덕산 자락의 내기리, 방림리, 희곡리, 현덕면 고등산 자락의 덕목리, 대안리 일대가 이에 속한다.

5) 평택평야에 궁방전이나 역둔토가 많았다는 사실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평택궁내부수어둔전답도 타조봉상책」 등 각종 추수기(秋收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1)평택지역 주요마을의 분포

성격	마을 명	성씨	위치	비고
구릉지대 마을	봉남리	경주 이씨 등	진위면 봉남리 아곡	진위현 읍치
	가곡리	안동권씨 외	진위면 가곡1, 2리	이항복의 후손
	도일동	원주 원씨	도일동 상리, 내리, 하리	원균의 후손
	은산리	봉화 정씨	진위면 은산1~3리 방촌	정도전의 후손
	좌교1리	남평 문씨	고덕면 좌교1리 앞은다리	
	양교1리	전주 이씨	오성면 양교1리 양다리	능원대군파
	죽1리	영일 정씨	오성면 죽1리 방울미	정몽주의 후손
	삼정1리	금녕 김씨	안중읍 삼정1리 대삼정	김문기 후손
	내 기 리 , 방림리	함평 이씨	포승읍 내기리 안골, 정문 동, 방림1, 2리 일대	이중길의 후손
	덕목리	곡부 공씨	현덕면 덕목3, 4리 냉정	공부의 후손
송화리	덕수 장씨	팽성읍 송화1리, 석근2리		
평야지대의 마을	안화리	각성바지	오성면 안화리	안화들
	신리	각성바지	오성면 신리 삼궁원 외	오성들
	창내리	각성바지	오성면 창내리	오성들
	교포리	각성바지	오성면 교포리	오성들
	평궁리	각성바지	팽성읍 평궁리	통한들
	신궁리	각성바지	팽성읍 신궁리	한판들
	노성리	각성바지	팽성읍 노성2리	왕십리들
	도두리	정씨, 박씨	팽성읍 도두리	도두리들
어촌마을	당거리	각성바지	오성면 당거2리 탑현	안성천 하류
	길음리	각성바지	오성면 길음2리 미뻬	안성천 하류
	노양리	각성바지	팽성읍 노양1리 뱃터	안성천 하류
	신왕리	각성바지	현덕면 신왕1리 말머리	안성천 하류
	만호5리	각성바지	포승읍 만호5리 솔개바위	아산만 유역
	권관2리	각성바지	현덕면 권관2, 3리	안성천 하류
	홍원3리	함평 이씨 외	포승읍 홍원3리 자오	발안천 수로
	원정7리	각성바지	포승읍 원정7리 범바위	아산만 유역
포구마을	군문1동	각성바지	평택시 군문1동	군문포
	노양1리	각성바지	팽성읍 노양1리	경양포
	신왕1리	각성바지	현덕면 신왕2리	신흥포
	권관2리	각성바지	현덕면 권관2리	계두진
	만호5리	각성바지	포승읍 만호5리	대진
	삼계1리	각성바지	청북면 삼계1리	용포
	궁1리	각성바지	고덕면 궁1리	다라고비진
	동고1리	각성바지	고덕면 동고1리	이포
	동청2리	각성바지	고덕면 동청2리	동청포
	황구지리	각성바지	서탄면 황구지리(폐동)	항곶진

평야지대 마을은 근대 전후의 간척지에 많다. 팽성읍의 평궁리, 신궁리, 노성리, 고덕면의 궁리, 오성면의 신리, 창내리, 교포리, 청북면 고잔리, 포승읍 홍원4~7리가 그들이다. 이들 마을은 대체로 형성시기가 100년이 안 되고, 다양한 지역에서 모이는 바람에 성씨나 주민구성이 매우 복잡적이다. 본래 갯벌이었던 곳에 마을이 형성되다보니 농업용수 뿐 아니라 식수도 부

족했고, 땀감까지 부족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도 이들이 버텨냈던 것은 고향에서 생산기반이 없는 빈농들이었고 간석지는 간척을 통하여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업이나 반농반어 또는 포구상업이 발달했던 마을들은 안성천 하류와 아산만 연안에 많았다. 나루와 포구가 발달했던 마을로는 군문포가 있었던 군문1동, 삼교포가 있었던 신대3동 삼교, 신왕나루(당포)가 있었던 현덕면 신왕리, 계두진이 있었던 권관1리, 경양포가 있었던 팽성읍 노양1리, 신성포가 있었던 노성1리, 곤지진이 있었던 대추리, 자오포, 호구포가 있었던 포승읍 홍원리, 용포가 있었던 가 있었던 청북면 삼계1리, 신포가 있었던 현곡2리, 대진이 있었던 포승읍 만호5리, 자오포, 호구포가 있었던 포승읍 홍원리, 동청포가 있었던 고덕면 동청2리, 향곶진이 있었던 서탄면 황구지리가 여기에 속한다.

평택지역의 마을 조사와 연구는 1990년대 중반 평택 한광중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김해규에 의해 시작되었다. 김해규는 지역사 연구 자료의 축적을 목적으로 1997년경부터 학생들과 함께 마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평택시민신문에 ‘평택의 지명이야기’를 연재하면서 본격적으로 마을조사활동을 실시하였다. 그의 마을조사는 읍지, 지리지, 실록, 일제강점기의 관변사료 등에 수록된 마을사료 수집과, 자연마을을 답사하며 주민들로부터 채록한 구술 사료를 토대로 역사쓰기를 시도한 점이 특징이었다. 이렇게 7년에 걸쳐 평택지역 대부분의 자연마을을 조사하고 신문에 연재한 글을 모아 2006~2008년 사이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1,2,3’⁶⁾으로 간행하였다. 그의 연구 성과는 ‘평택시사(2014)’, 고덕면지(2007), 팽성읍지(2009), 안중읍지(2011) 등 향토지 편찬에 반영되었으며 각종 지역사업에도 활용되었다.

2014년에는 평택지역에서 처음으로 “평택의 사라져 가는 마을 조사” 프로젝트가 평택시의 발주와 평택문화원 주최로 실시되었다. 이전에도 현재 삼성전자평택공장 공사가 진행 중인 고덕국제신도시지역 개발사업주인 경기도 및 LH공사, 경기주택공사, 평택도시공사가 발주하여 고덕면 좌교리, 해창리, 율포리 일대의 역사민속조사, 구술조사, 사진과 영상작업을 통한 아카이브구축이 시도되어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⁷⁾ 평택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따른 마을조사연구 프로젝트로는 최초의 일이었다. 이 같은 조사연구사업이 진행되게 된 것은 1990년대 이후 평택지역의 급속한 도시화, 공

6) 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 1,2,3, 평택문화원, 2006~2008

7)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평택 고덕국제신도시-황금길 초록길』 외, 2013.12

업화로 전통의 경관이 변하고 농촌마을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평택의 사라지는 마을 조사연구 ‘프로젝트는 우선 황해경제자유특구로 전부 또는 일부가 사라지는 포승읍 희곡리, 신영리를 비롯하여 택지개발사업으로 사라지는 세교동 은실마을, 1천 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했지만 급속한 도시화로 농촌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는 이충동 동령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조사연구사업에는 박사과정 이상의 지역조사 및 구술조사 경험이 있는 연구자 11명을 투입하였으며, 향후 마을지 편찬을 감안하여 인문지리, 구술조사, 마을건축 분야로 나눠 진행되었다. 조사된 결과물은 1차로 구술녹취집, 녹음파일, 사진으로 구분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였고, 2015년에는 2차 사업으로 마을지를 편찬하여 공유하도록 하였다.

위의 조사연구사업은 평택시의 급속한 도시화와 공업화로 농촌공동체가 붕괴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상당히 가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경관과 주민의 변동이 점점 심해지는 옛 고을의 중심지인 객사리와 봉남리, 역원마을인 칠원1동과 평성읍 추팔리, 집성촌으로 형성된 전통마을, 간적으로 형성된 마을, 어촌마을, 기지촌마을 등 주제에 따른 체계적 조사연구가 진행된다면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

3. 평택지역 민속(民俗)의 분포와 특성

민속학에서 ‘민속은 동일한 문화권 내에서 다수가 향유하는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문화’ 라고 정의한다. 민속의 분야는 매우 광범위한데 대체로 인문지리적 환경을 비롯하여 사회 경제생활, 의례와 일상생활, 의식주, 민간 신앙과 종교, 세시풍속, 전통놀이, 민속예술, 생업기술, 공예, 설화, 시가, 언어 등 다양하다.

평택지역은 민속학적으로 한반도의 중부문화권에 속한다. 지리적으로는 바다가 가깝고 구릉과 평야가 발달하여 농경문화와 해양문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들이 넓은 농경문화의 특징은 두레나 줄다리기같이 풍농을 기원하는 공동노동조직이나 놀이를 발달시켰으며, 대부분 음력 10월이나 정월에 거행되는 산신제나 당제도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는 행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음력 8월 백중놀이, 정월 대보름, 오월 단오, 유월 유두, 칠월 칠석 같은 세시풍속도 농경과 관련된 제의이며 축제였다. 오래전에는 구릉지대 마을을 중심으로 세시풍속을 많이 지켰지만 지금은 지키는 사람이나 마을이 거의 없다. 가신신앙은 평야보다는 구릉지역의 마을에서 발달하였다. 그것은 구릉지대의 마을들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오랜 전통을 갖

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신앙은 기풍(祈豊), 기복(祈福), 제액을 목적으로 드리는 제의행위다. 그러므로 마을신앙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다. 농사를 짓는 경우 풍농을 기원하고 어로활동을 하는 마을에서는 풍어와 어로활동에서의 안전을 기원한다. 돌림병 방지를 기원하며 평안과 구복을 기원하기도 하고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 어려움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한다.⁸⁾ 마을신앙은 농경문화의 발달과 관련이 깊다. 우리민족은 기원하고 소망하며 농경과 목축, 어로활동을 하였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성황제, 산신제, 당제, 풍어제도 지내지만 민중들의 삶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정제, 거리제, 서낭제, 장승제, 다리제도 지낸다. 줄다리거나 세세풍속에 따른 제의도 마을제에 해당된다.

마을신은 신격에 따라 산신(山神), 해신(海神), 용신(龍神), 성황신(城隍神), 서낭신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른다. 또한 마을신이 거처하는 곳도 산신당, 해신당, 용왕당, 성황당, 서낭당 등 다양하였다. 마을신의 모습은 나무나 장승, 커다란 돌일 수도 있었고, 때로는 아무런 형체가 없을 수도 있다. 이름이나 형체는 달라도 마을신은 수호신이며 풍요를 가져오는 신이었다. 그렇기에 마을에서는 마을신을 모시는 제의를 주기적으로 행하였다. 마을사람들은 제의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일체감을 느끼고, 오손도손 둘러앉아 신에게 바쳤던 제물을 나눠 먹음으로써 공동체임을 재확인하였다.⁹⁾

근대 이전의 마을신앙은 국가(관)주도형의 마을신앙과 민간주도형의 마을신앙이 있었다.¹⁰⁾ 국가주도형의 마을신앙은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조선시대로 접어들면서 고을 읍치(邑治)의 민간신앙은 민간의 치제(致祭)를 금지하고 관에서 주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지역은 국가의 필요성이나 유교신앙의 영향에 따라 신앙방법이나 절차와 결과가 변용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지역의 마을제 제의명칭으로 동제(洞祭), 산제(山祭), 산신제(山神祭), 산치성, 당제(堂祭), 도당제, 성황제, 정제(井祭), 대동제, 산천제, 부군산령제, 위제(衛祭), 구천제, 산고제 등이 있었다고 전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산신제(산제, 산치제 포함)이고 그 다음이 동제(洞祭)다. 신격(神格)은 대부분 산신(山神)이지만 지역에 따라 동신(洞神)이나 도당신(都堂神), 성황지신(城隍之神)도 모셨다.¹¹⁾ 제의시기는 추수가 끝나는 10월경이나 농한기, 계절이 끝나는 시기 그리고 일부이기는 하지

8) 김종대, 앞의 책 11쪽

9) 김해규, 「평택의 마을신앙」, 『평택민속지』 (상), 평택문화원, 2009, 128쪽

10) 이관호, 『내포지역 마을신앙의 전승과 변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 한국학협동과정 민속학전공 박사학위논문, 2009

11) 김종대, 앞의 책 13쪽 재인용

만 칠월칠석을 비롯한 음력6, 7월경에 거행하는 경우도 있다.

평택지역은 산신제의 전통이 강하다. 또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성과 지리적 특성에 따른 생산 활동에 따라 성황제가 발달한 마을과 산신제와 풍어제가 복합된 마을, 풍어제와 뱃고사만 지내는 마을, 당제나 산신제 없이 정제(井祭)만 지내는 마을, 당제나 산신제 외에도 거리제나, 장승제, 다리제를 지내는 마을 등 다양하다. 제당(祭堂)은 당집을 건축하고 산신도나 위패를 모신 경우가 많고, 평성읍 추팔리의 경우에는 관운장의 그림을 모시기도 했다. 당목(堂木)은 엄나무나 소나무, 참나무 당목을 많이 모신다. 엄나무는 제액의 의미가 있어 많이 모시고 소나무와 참나무는 평택지역의 북부와 남부지역에 많이 자생하여 당목으로 섬기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적으로는 북동부지역이 참나무와 엄나무, 서남부지역이 소나무와 엄나무를 많이 섬긴다. 일부마을에서는 터주가리를 해놓는 경우도 있다. 제의 일시는 음력 10월과 음력 정월 대보름 이전이 가장 많고 부분적으로 칠월 칠석에 거행하는 경우도 있다. 제물(祭物)은 신격(神格)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소나 돼지를 올리며, 근래 일부마을에서는 닭을 잡아 올리기도¹²⁾ 한다.

두레와 같은 공동노동조직은 평택지역 대부분의 마을에서 조직되었다. 그것은 예로부터 평택지역이 밭보다 논이 많아서 모내기나 추수는 가족노동이나 품앗이로 해결했지만 김매기만큼은 공동노동의 힘을 빌려야했기 때문이었다. 두레노동과 함께 노동요가 발달한 것도 특징이다. 노동요는 공동노동의 힘을 북돋우고 힘겨움을 달래기 위해 불렀던 노래다. 평택지역에서는 농요와 함께 어로요, 상부소리 등이 경기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근대 전후 내륙 깊숙이 바닷물이 유입되고 바다가 가까워 농경과 함께 어업이 발달했던 평택지역의 들과 바닷가 마을에서는 농업용수와 식수가 무척 귀했다. 안성천 유역이나 아산만 연안의 마을에 유난히 우물 정(井)자가 들어간 지명이 많은 것도 우물이 마을형성과 생존에 무척 중요했기 때문이다. 우물이 넉넉했거나 귀한 마을에서는 정월에 정제(井祭)를 거행했다. 정제는 ‘우물고사’라고도 부르는데 일반적으로는 공동우물에 지내지만, 오성들이나 하천 변의 마을들처럼 과거 갯벌이었거나 바닷물이 드나들던 갯가에 위치하여 우물을 얻기가 어려웠던 지역에서는 하천이나 웅덩이에 지내기도 하였다.

안성천 변이나 아산만 연안의 어촌마을들은 풍어제나 뱃고사를 지냈다. 풍어제는 마을제와 비슷한 시기에 마을제당에 지냈다면 뱃고사는 첫 출어를

12) 차중만(72세)씨는 서탄면 금양2리 안말은 본래 암소를 잡아 제물로 사용하였다가 20여 년 전 중단되었는데 2007년 경 다시 복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용문제로 암소를 잡지 못하게 되자 때에 따라 닭을 올리기도 하였다고 말했다. (2007년 8월 안말 경로당에서 인터뷰)

할 때나 새로운 어장(漁場)이 시작될 때 지냈다.

민속예술과 공예분야에는 ‘서각’이 유명하다. 서각은 서각장 이남규선생에 의해 전통이 계승되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밖에도 북과 장고를 제작하는 악기장 김진곤, 전통수의를 제작하는 수의장 한상길, 지화장 등 다양한 분야의 장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지역의 민속은 근대화 과정에서 대부분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전승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다음은 현재 전승되고 있는 평택지역의 민속이다.

표2) 평택지역에서 전승 중인 마을신앙

명칭	제의 시기	신격	위치
세교동 은실마을 산신제	음력 2월 초	산신(입향조)	평택시 세교동 은실마을
해창3, 4리 당제	정월	산신	평택시 고덕면 해창3리
당현리 당제	정월	산신	평택시 고덕면 당현1리
봉남리 성황제	음력 10월	성황지신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율북리 산신제	음력 10월	산신	평택시 청북면 율북1,2리
추팔리 성황제	정월	성황지신	평택시 팽성읍 추팔1리
본정리 산신제	정월	산신	평택시 팽성읍 본정1리
신왕리 당제	정월	산신	평택시 현덕면 신왕1, 2리
사리마을 산신제	정월	산신	평택시 서탄면 사리
동령마을 정제 및 줄다리기	정월	용신	평택시 이충동 동령마을
오룡동 마을 정제 및 줄다리기	정월	용신	평택시 진위면 마산1리

4. 평택지역 민속의 활용

평택지역의 민속은 현재 전승되고 있는 것이 매우 적다. 그것은 도시화와 공업화의 진전, 이촌향도 현상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 고령화로 인한 농촌공동체의 활력 약화, 농촌생활의 변화 및 종교의 이유에 따른 필요성 약화 때문이다. 그나마 남아 있는 민속들은 마을공동체가 강고하고 이장을 비롯한 중심세력의 전승의지가 강하여 명맥이 유지되는 것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마을 민속이 보존되려면 관(官)의 지원에 따른 원형 보존, 지속적인 학술연구, 그리고 마을민속을 소재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이 요구된다.

현재 평택지역의 민속 중에서 지역의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아 전승되고 연회되는 것으로는 평택농악과 평택민요, 와야골거북놀이 그리고 이충동 동령마을 정제와 줄다리기, 오룡동 정제 및 줄다리기, 몇몇 민속공예를 꼽을 수 있다. 그러면 우선 2015년 유네스코지정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평택농악을 말해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평택농악은 1985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1-나호(현재 2호)로 지정되었다. 이 농악은 웃다리지역(충청, 경기, 서울, 강원 서북부) 전문연희패의 농악과 팽성읍 평궁리 두레농악이 결합되어 형성된 민속놀이이다. 그래서 두레농악에서 하였던 지신밟기, 두레굿과 함께 전문연희패에서 하였던 고사소리, 무동놀이가 함께 나타난다. 현재 팽성읍 평궁리에 평택농악 전수회관이 있으며, 평택호 관광단지 안 한국소리터에 평택농악상설공연장이 조성되었고 평택농악보존회가 조직되어 공연 및 전승활동을 하고 있다.

농요, 어로요, 장례요로 구성된 평택민요는 2009년 경기도무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되었다. 평택민요의 평택지역 주민들의 생업활동과 의식, 생활상이 함축된 민요다. 경기도에서는 평택민요를 평택지역의 특성에 맞게 농요(이민조), 어로요(이종구), 장례요(박용철)로 나눠 지정하였다. 어로요는 어업이 발달했던 현덕면 신왕1리 일대의 어민들이 불렀던 노동요다. 종류로는 어로요 가운데 경기남부지역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뱃소리는 북부지역과도 다른 독특한 양식이다. 이밖에도 어로요로는 <땀 감는 소리>, <큰 배 노 젓는 소리>, <땀 내리는 소리>, <돌 옮기는 소리>, <아매 수해 내리는 소리(그물을 서로 맞추는 소리)>, <그물 뽑는 소리>, <줄 사리는 소리>, <그물 다는 소리>, <고기 되는 소리> 등이 있다. 이들은 평택민요보존회를 조직하고 정기공연과 전승활동으로 평택지역 민속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노력 중이다.

줄다리기는 평택지역에서도 북동부지역인 진위면과 송탄북부지역, 덕암산 지역 그리고 드물지만 팽성읍 신대리에서 행해지던 놀이다. 특히 이충동 정제 및 줄다리기와 마산리 오룡동의 정제 및 줄다리기는 전승되는 내용도 원형에 가깝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전통놀이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근래에는 하북2리에서도 행해지지만 연원이 오래되었다기보다는 이장의 주도하에 복원된 의미가 크기 때문에 생략한다. 통상 줄다리기는 풍농을 기원하는 제의로 마을의 남녀노소가 참여하여 먹고 마시며 연희를 즐겼다. 하지만 근래 지역 주민 사이의 견해 차이와 평택시와의 갈등으로 동령마을 줄다리기는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며, 오룡동 줄다리지만 마을축제를 넘어 지역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밖에도 마을 민속으로 분류할 수 없지만 판소리, 무속음악, 노동요, 두레풍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예인들이 있다. 모흥갑은 19세기 전기 8명창 가운데 한 명으로 근대 5명창의 한 사람인 이동백 명창과 함께 평택지

역을 상징하는 판소리 명창이다. 19세기에 활동했던 대금시나위의 명인 김부익최, 대금의 명인으로 경기시나위 동령제를 만든 방용현(1868~미상), 방용현의 제자였던 대금연주자 김광식과 송파산대놀이 예능보유자 이충선, 경기시나위 마지막 대금주자이며 남양제를 창안한 방돌근(1941~2001)도 특출난 인물이다. 평택시 서정동 출신으로 호적과 꼭두각시놀음의 명인이었던 송창선(1911~1984), 해금산조와 피리 시나위의 명인으로 악기연주, 소리, 춤 등 모든 분야에 두루 능했으며, 연주자로서뿐 아니라 교육자, 지휘자, 국악의 현대화를 이룩한 인물로 현대 국악사를 새롭게 쓴 지영희선생도 기억해야 할 인물이다. 현재 평택지역에서는 중앙대학교 국악대학원과 함께 지영희선생기념사업회를 조직하여 매년 학술대회와 정기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시나위의 중요한 발상지임에도 이 분야의 학술연구나 문화콘텐츠는 개발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5. 맺음말

마을의 문화유산은 지리적, 역사적 환경의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민중들의 삶과 사상, 생산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형성되었다. 특히 마을민속은 민중들의 삶과 사상을 지배했던 문화유산이라는 점에 있어서 가치와 의미가 있다.

평택지역은 농경문화와 해양문화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독특한 문화양상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지리적 문화적 특징은 마을제(부락제)와 공동노동조직인 두레 및 두레농악, 평택농악과 노동요(평택민요)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가운데 평택농악이나 평택민요처럼 일부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고 일부 마을의 줄다리기나 정제는 마을축제 형태로 전승되지만, 아직도 마을 안에 머물러 있는 마을제를 비롯한 민속문화는 평택지역의 도시화와 농촌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라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본인이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고 지역의 민속문화가 전승, 연희되어 시민들의 사랑받는 문화콘텐츠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 마을과 마을민속에 대한 지속적인 학술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역사, 문화적으로 중요한 마을과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재지정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전승되는 민속문화 뿐 아니라 가까운 시기에 중단된 민속문화의 복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마을과 마을민속을 연계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이 가운데 첫째와 둘째는 재론할 필요가 없고, 셋째와 넷째의 경우는 의식의 전환에 따른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평택지역을 조사하다 보면 진위면 봉남리, 은산리, 도일동을 비롯한 덕암산 일원, 팽성읍 신대1리 등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서 1980년대 전후까지 줄다리거나 정제를 거행하였고, 근래에 중단된 마을제도 상당 수 존재한다. 이 같은 문화유산을 다시 발굴하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축제로 거행한다면 마을민속의 전승과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 마을의 세시풍속도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의 작은 축제로 활용하고, 전통놀이를 복원하여 함께 연희하는 것도 전통문화의 전승과 활용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마을에 역사를 입힐 수 있는 다양한 시도도 요구된다. 예컨대 마을회관에 역사자료관을 만든다든지, 마을입구의 표지석에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 마을지를 편찬하는 것, 전통농업을 복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김해규)

<<참고문헌>>

1. 조선총독부, 『부락제』, 1937
2.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제당』, 1995
3. 이필영, 『마을신앙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4
4. 주장현, 『곳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2
5. 김종대, 『한반도 중부지방의 민간신앙』, 민속원, 2004
6. 강성복, 『충청민속문화론』, 민속원, 2005
7.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신앙』, 2007
8. 평택문화원, 『평택민속지』 상, 2009
9. 김해규, 『평택역사산책』, 평택시민신문사, 2013
10. 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 1,2,3, 평택문화원, 2006~2008
11.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 2014

신둔면 지석리의 정개산 산신제 전승 현황

이선민 (이천문화원 주임)

< 목 차 >

1. 문제 제기
2. 지석리 정개산 산신제
 - (1) 정개산 산신제 개관
 - (2) 제의 절차
 - ① 제관, 축관, 화부선정
 - ② 제물의 구입
 - ③ 제사절차
 - ④ 마무리
3. 맺으며
 - (1) 전승의 어려움
 - (2) 제안

1. 문제 제기

산신山神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섬겼던 자연신 중 으뜸이 되는 존재로 추앙받아왔다. 선조들은 높고 웅장한 산의 위엄을 신성시하며, 산을 수호하는 산신을 가장 신령스럽고 영험한 신앙의 대상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산신에게 올리는 제사인 산신제는 단군신화에서 그 역사적인 전통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랜 시간 우리민족의 삶 속에 녹아든 토속신앙이었다. 왕이 주관하는 국가제의를 차치하더라도, 지금도 일부 마을에서 부락민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산신당의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만약 마을에서 섬기는 신이 둘 이상일 경우에 산신을 모신 곳을 상당上堂으로 부르며 제의도 먼저 올리고 제물도 가장 좋은 것을 진설할 정도로 산신은 민중에게 중

요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¹³⁾

이천시는 산지의 발달이 미약한 편이다. 광주산맥의 지맥이 지나는 북서부와 서부 일부 지역만 높은 산지¹⁴⁾로 둘러싸여 있을 뿐, 이천의 대부분 지역은 낮은 산지, 혹은 하천주변에 펼쳐진 충적지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천문화원과 강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가 실시한 각 읍면별 민속조사에 따르면 이천 지역 곳곳에 동신제洞神祭 성격¹⁵⁾을 지닌 산제山祭, 혹은 산신제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시기와 명칭은 다르지만 백사면, 율면, 설성면, 마장면, 부발읍, 신둔면 등에서 산신제가 행해졌으며 특히 수산리와 대죽리의 노성산 산제사, 마장면의 양각산 산제사, 부발읍 산촌리 주민이 주관하는 효양산 산제사, 그리고 신둔면 지식리의 정개산 산신제는 이천 년대 초반까지 실시되었다.¹⁶⁾ 이중 신둔면 지식리 마을이 주관하는 정개산 산신제는 이천의 대표적인 산신제로 지금도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정개산은 이천시 북서쪽에 위치하여 원적산과 함께 광주와 이천의 경계를 이루는 높은 산이며 지식리 주민은 소당산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산중턱에서 산신제가 격년으로 행해지는데 2005년부터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이천시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정개산 산신제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마을 촌로의 증언에 의하면 일제강점기에도 지식리 주민은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산신제를 지내왔으며 예전에는 산신제의 제의절차를 기록한 책도 있었다고 한다. 제의비용은 전통적으로 산제미山祭米라 하여 마을 주민이 가구별로 쌀 한말씩을 추렴하여 사용하고, 만약 비용이 모자를 경우에는 마을 공동의 돈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산신제를 두고 마을주민간의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식리는 최근 외부에서 유입된 주민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들은 대부분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산신제를 지속하려는 기존 주민과 마찰을 겪고 있다. 2015년에 행해진 산신제는 교회를 다니는 주민도 마을의 행사라 하여 제의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산제사를 위한 회의에는 지금도 일절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 농촌의 고질적인 병폐인 노령화현상 또한 산신제 전승에 큰 장애물

13) 임재해, 「산신설화의 전승양상과 산신숭배의 문화」, 『비교민속학』, 비교민속학회, 2005, pp.379~380

14) 대부분 해발고도 400~600m정도이며 이천의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산지이다.

15) 마을 사람들이 마을을 수호하는 동신洞神에게 지내는 공동 제사, 마을 사람들의 무병과 풍년을 빌며 대개 대보름날 서낭당, 산신당, 당산 따위에서 지낸다.

16)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이천시지3권-민속과 구비전승』, 2001, pp.133~147

이다. 지식리에도 산신제를 이어갈 젊은 세대가 소수에 불과하며, 그나마 산신제의 지속여부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현재는 대부분 고령자인 마을 토박이주민을 중심으로 산신제가 어렵게 이어지고 있으나 언제까지 전승될 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¹⁷⁾ 마을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전승을 위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이끌어낼 획기적인 방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개산 산신제는 자연스럽게 소멸될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2. 지식리 정개산 산신제¹⁸⁾

(1) 정개산 산신제 개관

정개산 산신제는 이천시 신둔면 지식리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마을제사의 성격이 강하다. 마을에서는 정개산 산신제 혹은 소당산 산신제, 지식리 산신제라 부른다. 한 해 걸러 격년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음력 이월 초하룻날에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지내기 위한 당집이나 신목은 없으나 산 중턱에 축대를 마련하여 제물을 진설한다.

경기도박물관에서 펴낸 『경기민속지』(1988)와 국립민속박물관의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2010)에서 정개산 산신제를 소개한 바 있으며, 이천에서는 이천문화원과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가 이천시 신둔면의 『문화유적·민속조사보고서』(2000)를 펴내며 정개산 산신제의 제의절차와 제물의 진설, 당의 형태 등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 밖에 『이천시지 제3권 -민속과 구비전승』(2001)과 『설봉문화 제29호』(2003), 그리고 지역 언론 등에서 정개산 산신제를 꾸준히 다루었다.

지식리 주민은 한국전쟁 당시 마을이 큰 피해를 입지 않았고, 전쟁에 참여했던 마을 주민 중 전사자가 한명도 없었던 점을 산신의 도움이라 믿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개산에 무덤을 쓰면 산신의 진노를 산다고 생각하여 마을주민 누구도 무덤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1950년대에 정개산 중턱에서 불빛이 새어나오자 누군가 조상묘를 쓴다고 여겨 그 곳으로 달려가 땅을 파헤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산지사터’라 불리는 축대 근처에 함부로 침을 뱉거나 오줌을 누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17) 예를 들어 정개산 산신제를 주관할 제관, 축관, 화부를 뽑기 위해 전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생기와 복덕을 따져 선정하였는데 2015년에는 이에 해당하는 주민이 없어 다음 순서인 ‘천의’기준으로 하여 겨우 선정하였다.

18) 정개산 산신제의 일반적인 내용은 이천문화원과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가 펴낸 『신둔면 문화유적·민속조사보고서』 2000의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2015년 3월20일에 새롭게 채록한 내용을 보충하였다.

2011년에는 마을의 100호 가운데 80호 정도가 산신제에 참여하였다.

(2) 제의절차

① 제관, 축관, 화부선정

제사를 지내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은 정개산 산신제를 주관할 제관과 축관, 화부를 선정하는 일이다. 보통 제사 일주일 전부터 마을회관에 모여 결정한다. 2015년의 음력 2월1일은 양력으로 3월20일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3월 14일에 마을회관에 모여 회의를 하였다. 제사를 주관하는 제관과 축문을 읽는 축관은 각각 한명씩, 조라술을 만들기 위해 불을 피우고 짐을 옮길 화부는 두 명을 선출하는데 온 마을 사람을 대상으로 성명과 생년월일을 따져 생기복덕(生氣福德)으로 결정한다.¹⁹⁾ 이들은 직접적으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복덕에 해당되어도 가정에 우환이 있거나, 임산부가 있거나, 부인이 월경이 있는 경우는 선출될 수 없고, 본인 스스로도 부정하게 여겨 기피한다. 제관과 화부의 선정은 지식리 주민 가운데 한학을 익힌 서정호(75세)씨가 담당하며, 선정된 주민은 마을을 위해 기꺼이 수고를 감수하고 제사를 주관한다. 본래 생기와 복덕에 해당하는 이가 가장 좋지만 2015년에는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 천의로 결정하였다.²⁰⁾ 산신제에 참여하는 주민이 점점 줄어들어 해당자를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마을에서 유일하게 생기복덕을 따질 수 있는 서정호 씨가 고령이라 마을주민들의 고민이 깊다.

한편 뽀뽀 사람들은 집 대문과 마을 입구에 금줄을 치고 금기된 생활에 들어간다. 비린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하며, 제사지내기 3일전부터는 외출을 삼가고 근신한다. 제사 당일엔 제관과 화부는 부정한 것을 피하기 위해 새벽 4~5시경에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제사터에 오르며, 예전에는 축대 아래 샘에서 목욕재계를 하였지만 최근에는 약식으로 세수만 한다. 제사당일 제관과 화부는 제단터에 머물며 조라술을 만드는데 오직 볶은 소금과 밥만 먹으며 자중한다.

19) 일진日辰과 나이를 팔괘八卦에 배정하여 상·중·하 세 효조의 변화로써 운수를 보는 방법, 제관 선정의 기준으로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20) 가장 좋은 운수는 생기, 복덕이며 해당자가 없을 경우 천의, 절체, 유훈 순으로 결정한다. 다음 순서인 과해, 절명, 귀혼은 좋지 않아 제관이 될 수 없다.

② 제물의 구입

산신제의 가장 큰 제물은 황소이다. 보통 3살 내외의 수소를 고르는데 잡털이 섞이지 않고, 뿔 모양이 곧은 이른바 ‘잘생긴’ 소를 고른다. 마을 주민들은 정개산의 산신이 과부인 암호랑이이기 때문에 산신에게 올리는 제물로 젊고 잘생긴 수소를 바쳐야 한다고 생각한다.²¹⁾ 집집마다 거둔 비용으로 소를 구입하는데, 황소 값이 비쌀 때 젊은이들 사이에서 반대가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에도 마을어른들이 ‘그 어려운 왜정시대에도 해왔는데 무슨 소리냐’고 해서 지금도 여전히 제사를 위해 항상 황소를 잡고 있다. 황소는 부정이 없는 집에 보관하다가 제사 당일 정개산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긴 후²²⁾ 도살장에서 잡아 제당으로 운반한다.

황소 이외에 귀한 제물은 대구이다. 제관은 가장 비싼 물고기인 대구포를 가락시장 등지에서 구입하고 대추·밤·감 등의 삼색과일도 준비한다. 제물을 구입할 때는 흥정을 하지 않으며, 조용히 가서 조용히 사온다.

③ 제사절차

새벽에 제단터로 오른 제관과 화부는 먼저 메를 지워 정화수와 함께 제단에 올리고 절을 한다. 그리고 메와 누룩을 버무려 땅에 묻고 그 위에 모닥불을 놓아 조라술²³⁾을 만든다. 조라술은 약 15시간이면 숙성되어 그날 밤 12시에 지내는 제사에 쓸 수 있다. 오전에는 백설기를 찌어 제단에 올리는데 떡가루는 제관 집에서 미리 찜는다.

오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잡은 소를 제단근처로 운반한다. 하지만 제단에는 오직 제관과 화부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약 200미터 떨어진 제단 밑에까지만 운반하고 화부가 제물을 제단으로 옮긴다. 소가 워낙 크고 무겁기 때문에 여러 차례 지게를 지어야 하는데, 이 절차도 점차 노쇠한 주민들이 버거워하는 부분이다. 제물을 축대에 진설한 화부는 조라술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모아 불을 놓고 밥을 지어 올린다. 본격적으로 제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화부와 제관은 주위를 배회하며 제단을 정비하고 불을 관리한다.

21)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만든 축대가 있는 산제사터는 산골짜기를 타고 흐르는 두개의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져 Y자 형태를 이루는 곳이다. 마을 주민은 이곳을 암호랑이의 생식기를 닮은 명당자리로, 개인이 묘를 쓰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마을은 반대로 망한다고 믿고 있다.

22) 가물어 물이 없을 경우 술가지로 쓸어내리는 행위로 대체한다.

23) 산신제나 용왕제 따위에 쓰는 술, 술을 빚어서 제단 옆에 묻었다가 쓴다.

제사상에는 먼저 소가죽을 깔고 토막 낸 고기를 맞추어 소의 형태를 잡는다. 소의 머리는 동쪽을 향하며 조라술과 삼색과일, 백설기, 향을 진설한다. 본래 제단 근처에 큰 향나무가 있어 향을 올릴 때 사용했으나 2014년 이천지역을 휩쓴 큰 홍수로 향나무가 떠내려가서 2015년에는 개울 옆에 바싹 말라버린 향나무 조각을 취해 사용했다. 한편 한쪽에서는 쇠목을 넣어 소금으로만 간을 한 선짓국을 끓여 나중에 소를 운반한 마을 사람들의 안주로 쓴다. 밤 10시 무렵이 되면 비로소 하루 종일 집에서 자중하고 있던 축관이 제단으로 오르고, 제물 진설이 완료된 12시 무렵에 제사를 시작한다.

제관은 술을 올리고 두 번 절을 한다. 이어 축관이 절을 하고 축문을 읽는다. 독축讀祝이 끝나면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절을 하고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마을소지와 제사 당사자의 것만 올리며 마을 주민의 개인별 소지는 올리지 않는다. 축문은 본래 한문으로 적혀있었으나 1990년 초 수하리 주민인 나기창씨가 번역한 한글 축문도 보관하고 있다. 축관은 대개 한문을 아는 사람이 맡았지만 앞으로 한문을 모르는 이도 축관을 맡을 경우가 있을 것을 대비했다.

④ 마무리

제사가 끝날 무렵 회관에 모여 있던 마을 사람들은 소고기와 선짓국을 운반하기 위해 산에 오른다. 소고기는 마을회관에 보관하고 선짓국과 조라술은 나누어 먹는다. 소고기는 다음날 지석리 5개반 반장들이 각 반별로 나누며, 제사에 쓰인 대구와 과일도 똑같이 나누어 가진다. 제관과 축관, 화부에게는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고기 한 근씩을 따로 떼어준다. 제사가 끝난 다음날 마을회관에 마을사람들이 모여 선짓국과 쇠목으로 음복을 한다.

3. 맺으며

(1) 전승의 어려움

오랜 시간 이어온 정개산 산신제는 오늘날 몇 가지 이유로 계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언급한 농촌의 고령화 현상 이외에도 산신제가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종교적인 색채, 그리고 폐쇄적인 제의절차가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이는 새로이 마을에 정착한 외부 유입주민과 기존 토박이 주민간의 갈등으로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천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은 율면지역에 전승되는 ‘정승달구지’와 경기도무형문화재 50호인 ‘이천거북놀이’를 꼽을 수 있다. 둘 다 충분히 계승할만한 문화원형이지만 두 민속의 행보는 확연히 차이가 드러난다. 이천거북놀이는 거북놀이보존회를 중심으로 지역 축제와 각종 행사에서 정기적인 시연회를 가지고 있고, 거북놀이를 활용한 청소년교육, 심포지엄, 지역축제 등 이차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며 활발한 전승활동을 벌이고 있다. 반면 율면정승달구지는 상황이 열악하다. ‘정승달구지’ 자체만으로 상당히 학술적 가치가 높은 민속임에도 전승활동은커녕 정승달구지보존회의 운영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천거북놀이는 본질적으로 대보름날 행해진 즐거운 연회인데 반해, 정승달구지는 장례를 치를 때 부르는 제의요 성격이 강한 것이 결정적인 차이로 보인다. 보통 시민이 우리의 민속을 접할 기회는 주로 축제나 행사 때의 시연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행사기획자의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상喪을 치를 때 부르는 정승달구지보다 참여자의 흥을 돋우고 축원을 하는 거북놀이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다시 말해 급속한 사회변화로 본래의 의미를 잃은 우리 민속 가운데 현대인에게 적합한 민속은 그나마 계승이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 도태될 확률이 높다.

같은 맥락에서 산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약해지는 현 상황에서 산신제의 전통적인 의미만을 고집하며 새로운 세대의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또한 산신제의 종교적인 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대부분 기독교신자인 유입주민과의 마찰을 피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전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개산 산신제의 창조적인 전승을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가 ‘원형’이라고 믿는 민속은 시대에 맞게 수없이 변화했다. 오늘날 정개산 산신제를 주관하는 제관은 도포와 건을 착용하고 유교식으로 제의를 주관한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처럼 산신제의 역사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당시 산신제를 주관하는 누군가는 지금처럼 조선시대 복식을 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고 제의 형식도 달랐을 것이다. 민속의 사전적인 의미는 ‘민간 생활과 결부된 신앙, 습관, 풍속, 전설, 기술, 전승 문화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과 ‘결부’되어 있지 않은 민속은 필연적으로 전승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아직 전승의 이유를 찾지 못한 민속이라도 현시대와의 연결고리만 있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시대로 이어나갈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2) 제안

최근 들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산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지난 1998년, 유엔 총회는 기후변화·열대림 파괴·사막화방지와 마찬가지로 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을 ‘세계 산의 해’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산은 문화와 휴양의 중심이자 수자원·산림자원·동식물의 보고로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도시화와 관광객 증가 등의 이유로 환경 악화에 직면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엔은 산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와 책자 발간, 교육자료 개발에 주목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개발과 산촌 주민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전부터 산신이 깃든 산을 영산(靈山)이라 하여 산은 물론이거니와 산에서 나는 모든 것을 신성하게 여겨왔다. 산신이 주인인 산에서 돌 하나, 나무 하나도 허투루 여기지 않았으며 나무를 벨 때도, 산삼을 캐 때도, 심지어 산에 묘지를 쓸 때에도 반드시 산신께 고하는 제사를 올렸다. 이처럼 우리의 선조는 산신신앙으로부터 기원한, 자연과 공생하는 생태학적 가치를 체득하고 있었고, 산을 함부로 훼손할 까닭이 없었다.²⁴⁾

따라서 산신제에 대한 지식리 주민의 믿음을, 단순히 미신으로 취급하는 식민주의적 해석이나 주술적 방편으로 간주하는 종교적 관점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생태학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자연친화적 문화의 대안으로 산신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신에 대한 인식이 제의적인 성격을 벗어나 ‘산을 훼손하는 외부적인 요인에 맞서 산을 수호하는 존재’로 변화한다면 지식리의 젊은 세대나 다른 종교를 가진 유입주민이 정개산 산신제를 받아들이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연환경의 보호자로 새롭게 정립한 정개산 산신제를 활용하여, 생태공경의 태도를 견지한 또 다른 콘텐츠로 확대재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개산 산신제의 주체인 지식리 마을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정개산 산신제와 관련한 자료를 철저하게 정리하고 연구하는 작업도 필수적이다. 이천시 등 관련 기관의 행정적인 지원과 지역문화연구자, 문화행사기획자, 문화활동가 등 여러 주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정개산 산신제가 지

24) 임해재, 위의 논문

석리 주민의 화합과 신 구세대의 긍정적인 접점이 될 수 있는, 본래의 의미를 되찾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경기도박물관. 『경기민속지』 .1988

이천문화원·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신둔면 문화유적·민속조사보고서』 .2000

이천문화원. 『설봉문화』 29호.2003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이천시지3권-민속과 구비전승』 ,2001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 편』 2010.

임재해. 「산신설화의 전승양상과 산신숭배의 문화」. 『비교민속학』 29호.2005.

용인의 읍면지 발간사업과 민속놀이 발굴

김장환(용인문화원 사무국장)

1. 용인의 도시화와 읍면지 발간

용인의 고지도와 지금의 행정지도를 펴놓고 보면 지리적으로 거의 변동이 없다. 조선 초기부터 지금의 서울시와 맞먹는 규모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다.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위치해 있으면서 유일하게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 중심지이다. 제2경부고속도로, 제2서울외곽도로도 계획 중이다.

처인구에는 초등학교 분교가 있는가 하면, 수지구에는 서울 중심가에서나 볼 수 있는 대형 백화점이 성시를 이루고 있는 도농복합도시이다. 또 용인시는 인구 1백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2009년도 전국 163개 기초생활권 경쟁력 평가에서 전지역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한국민속촌, 에버랜드, 한택식물원, MBC드라마아, 백남준아트센터 등 문화관광시설도 전국 최고의 수준이다.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국인이라면 모두가 용인을 방문했을 터이다. 세계적인 지명도 역시 서울 다음일 것이다. 대학, 박물관, 미술관, 연수원 등 문화시설이 가장 많은 곳도 용인이다. 그야말로 자연환경과 문화 환경이 전국 지자체 중 최고의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용인은 선사시대 남·북방식의 고인돌이 공유하는 곳, 삼국시대엔 백제·신라·고구려가 점유했던 곳, 조선시대엔 유학(儒學)의 성지(聖地)요, 기호학파(畿湖學派)의 산실로 인식되던 곳이다. 근대시기엔 토착신앙과 천주교가 공존하던 곳, 항일(抗日)과 친일(親日)이 병존하던 곳이다. 용인은 이처럼 각 시대마다 다양한 문화여건 속에서 경향(京鄕)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여 고유문화를 창출한 지역이다. 한마디로 전래의 고유성(固有性)을 고집하면서도 유입된 문화 여건을 적극 수용하여 발전해온 지역이다.

하지만 8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진행되던 용인 서북부 지역의 택지개발이 9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히 늘어나 분당 신도시와 맞먹는 규모로 확대되었고, 이어 죽전, 기흥, 구성 등 서부지역의 급성장과 함께 90년대 초 20만 명에 불과하던 인구가 40만(1998년)에 육박하는 중급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더욱이 향후 100만이 넘는 거대도시로 변모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하나 둘 사라져 가는 마을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문화계 인사들은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사람들이 거주해 온 생활공간이자, 민속과 의례, 신앙 등 전통문화를 형성해 온 문화공간이 마을이다. 따라서 마을이 사라진다는 것은 전통적인 우리문화의 뿌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을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도시가 형성되고,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떠나고 새로운 주민들이 유입되는 현상 속에서 부단히 고민한 결과물이 바로 읍면지 편찬사업이었다. 읍면지 발간은 사라지는 마을과 주민들의 영속성을 보장할 것이란 확신으로 용인문화원에서 1998년부터 추진하게 되었다.

2. 11개 읍면지 소개

1) 구성면지(駒城面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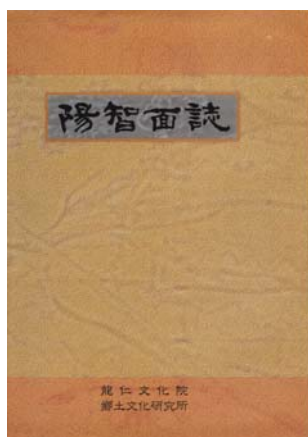
1998년 용인문화원에서 용인시 구성면 지역의 실상을 기록으로 남긴 지지(地誌)로서 용인시 읍면지 발간사업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구성면은 본래 용인현의 치소가 있던 구 용인지역을 말한다. 2000년 9월 1일 구성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가 2005년 용인지역 행정구역 개편 때 기흥읍과 합쳐서 기흥구에 편입된 지역이다. 용인의 서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에 따라 구성면의 변화 추세를 예견하고 당대의 현황을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면지를 간행하였다. 1년여에 걸쳐 30여 명의 집필진이 참여하였고 1018쪽의 분량에 16장 46절로 항목을 구분하였다. 주 내용을 보면 구성면의 연혁에 이어 유래, 자연환경, 정치, 행정, 사법, 치안, 산업경제, 복지사회, 교육, 문화예술, 종교, 인물, 민속, 통과의례, 부록 등으로 구성하였다. 민속 부문에서는 구성면 지역에 전해오는 민간의 다양한 민속놀이들을 소개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 민속놀이는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朝鮮의 鄉土娛樂』 중 용인지역 민속을 소개하고 현지 조사 내용과 대비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박첨지, 흥동지 놀이’ 라고 하는 가면극이 있었다고 소개되고 있지만 현재는 명칭조차 확인할 수 없다. 또한 1960년대 이후의 놀이는 제보자의 증언을 참고하고 있다.

2) 기흥읍지(器興邑誌)

2000년 발행되었다. 기흥읍은 용인의 서부지역에 위치한다. 행정구역은 11개 법정리를 관할하였으나 시 승격 후 급진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지형이 바뀌고 지명이 변하는 등 숨 가쁜 전환기를 맞게 된다. 당대의 실상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1,380쪽 분량으로 간행된 기흥읍지는 총 15장, 48절로 구성되었고, 총설, 환경, 역사, 정치, 산업, 교유, 종교, 언론, 출판, 문화, 예술, 민속, 세거성씨, 부록 순으로 편집 되었다. 모두 25명의 각계 전문가가 분야별로 나누어 집필하였다. 이 책을 편찬할 당시만 해도 기흥읍의 읍세(邑勢)는 지방의 웅만한 일개 군의 규모를 능가하는 인구와 세수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대학, 연수원, 산업시설과 민속촌, 경기도박물관 등의 관광문화 자원과 편리한 교통의 입지 등 입지적 조건 때문에 급속하게 발전하다가 용인군이 시로 승격하게 되자 5개 동으로 분할되기에 이르렀다. 기흥읍지의 민속 부문에서는 기흥지역에 오랫동안 전승되어 오고 있거나 전승되어 오던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다양한 연령대의 제보자들로부터 증언을 토대로 소개하고 있다. 정월 열나흘날 행해지는 야광귀 쫓기, 제웅치기 등이 소개되고 있고 기흥 서천리, 농서리의 두레싸움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3) 양지면지(陽智面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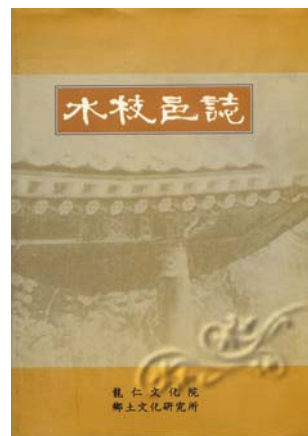


『양지면지』는 『구성면지』, 『수지읍지』에 이어 세 번째로 제작된 읍면지 시리즈로 2001년도에 간행되었다. 양지면은 본래 조선시대에는 양지현의 관아가 있던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용인군과 통합되기 이전까지는 일정 구역을 관할해 온 행정 구역의 중심지였다. 향토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용인현의 치소였던 구성면 못지않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1,350쪽 분량이며 총 15장으로 편제하였다. 내용은 총설, 환경, 역사, 정치, 산업,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언론, 출판, 유물 유적, 민속, 놀이, 성씨와 인물, 부록 순으로 편성되었다. 특히 부록에서는 ‘양지읍지’, 일제시대 ‘양지면의 역대 관리록’, 양지현과 관련된 조선왕조실록 자료 등을 발췌하여 수록하였고, 기타 영조연간의 신

정사례(新定事例) 등이 수록되어 비교적 완성도가 높은 향토지라 할 수 있다. 민속과 관련하여 계절별 세시풍속과 마을 단위의 공동체 신앙,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신 제의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반정마을의 어은산제, 대대리 마을의 마을 제사, 주북리 박종연가의 가신신앙 등 지역주민의 제보와 문화원 발간 문헌자료를 토대로 절차에서부터 세부적인 진행 내용까지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들 마을의 공동체 의식들은 지금은 흔적조차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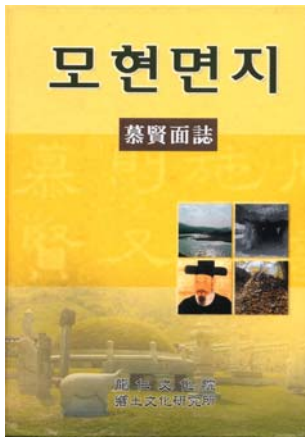
4) 수지읍지(水枝邑誌)

수지지구는 한 때 난개발의 대명사가 될 만큼 변화와 발전을 거듭한 지역이다. 용인의 북서부지역에 위치하면서 분당, 수원 등 대도시와 인접하고 주거지로서 도시가 발달되어 예전의 모습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또 용인이 시로 승격되고 구제가 생길 때 수지읍 지역이 수지구가 되었을 만큼 인구가 밀집되었다. 개발과 도시화로 산천초목이 모두 제 모습을 잃었으나 오직 이 한권의 책의 기록에 수지의 옛 정서가 담겨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기록물은 향후 향토 사료로서의 기본 자료가 됨으로 기록 문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는 대표적 자료이기도 하다. 전체 쪽수 1,410면으로 2002년 간행된 『수지읍지』는 14장으로 구성되었고, 수지읍의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는 인구구조, 공간구조, 사회구조 등을 다룬 것이 여타 읍지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멸실된 지명과 마을별 연혁과 유래 등은 상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민속 부문에 있어서는 세시풍속이나 소규모로 진행되는 놀이 정도를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단위로 이루어지던 상현동 줄다리거나 죽전 줄보맥이, 죽전 두레놀이 등도 소개되고 있다.



5) 모현면지(慕賢面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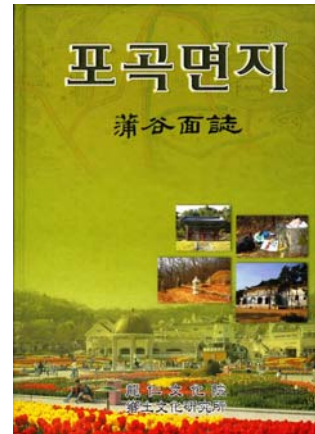
2003년 발간된 『모현면지』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시한 <한국향토지전자대전>의 편찬체계의기본 틀을 전국적으로 최초로 적용한 사례이다. 편찬체계의 구성은 삶의 터전(환경, 지리, 인문지리), 삶의 내력(역사), 삶의 자취(문화유산), 삶의 주체(성씨·인물), 삶의



틀(정치·경제·사회), 삶의 내용(종교, 교육, 문화예술, 체육), 삶의 방식(생활, 민속), 삶의 이야기(구비·전승·언어·문학)이다. 총 쪽수는 1400면이고 편수는 9편으로 나누고 편 이하에 장과 절을 설정하여 세부적으로 집필되었다. 편 별 내용을 보면 삶의 터전으로 환경과 지리분야를 다루었고, 삶의 내력에는 역사와 근대사를, 삶의 자취에서는 선사유적, 건축유적, 문화유산 등을 취급하였고, 삶의 주체에서는 성씨와 인물, 삶의 틀에서는 정치, 경제, 산업을, 삶의 내용에서는 종교, 교육, 문화, 예술을, 삶의 방식에서는 생활과 민속, 마지막에서는 구비전승을 다루고 있다. 삶의 방식에서 다루고 있는 민속 부문에서는 각종 의례, 민간 신앙, 민간의료 및 금기, 속신, 세시풍속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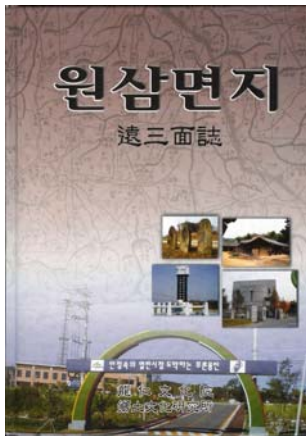
6) 포곡면지(蒲谷面誌)

2004년에 간행한 『포곡면지』는 포곡읍의 실상과 문물을 기록한 향토지로서 읍으로 승격되기 1년 전에 제작되었다. 포곡읍은 용인시 29개 읍면동 중의 하나로서 향의 치소가 있던 곳이라고도 한다. 2005년 10월 30일 읍으로 승격되었고 9개의 법정리에 18개의 행정리를 통괄하고 있다. 특히 인문관광 시설인 에버랜드의 전신인 용인자연농원이 들어서면서부터 관광지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다. 이곳은 모현면과 더불어 날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포곡면지』에서는 기존의 읍면지에서 다루던 정치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지역민의 삶을 다룬 지지서로서 과거와 현재를 망라하고 있다. 1편 ‘삶의 터전’에서는 자연 환경인 위치와 면적·지형·지질·기후·동식물·마을 경관·취락 및 풍수를 서술하였고, 2편의 ‘삶의 내력’에서는 지방의 역사를 담았고, 3편 ‘삶의 자취’에서는 문화유산·유적·분묘·전적·서적·고문서 자료를 수록하였다. 4편 ‘삶의 주체’에서는 성씨와 인물·세거 성씨·집성촌 등을 다루었다. 5편 ‘삶의 틀’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지역 사회의 운동 등을, 6·7편 ‘삶의 내용과 방식’에서는 경제와 산업·종교·교육·문화·예술·지역 축제 행사 등을 취급하였다. 끝으로 8편 ‘생활과 민속’에서는 의식주 의례·민간 신앙·세시 풍속·민속 놀이와 어문학에 관련된 구비 전승 자료를 수록하였다. 민속 부문에서는 평



생의례, 마을 의례, 세시풍속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용인의 대표적인 무속신앙인 할미성대동굿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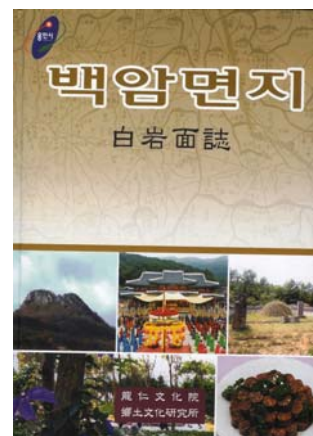
7) 원삼면지(遠三面誌)



『원삼면지』는 2005년 용인문화원이 원삼면의 실상과 문물을 기록으로 남긴 향토문화자료 총서로서 선시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삼면의 역사와 함께 12개리 지역민들의 삶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원삼면은 용인의 개발 여파에도 불구하고 성장 속도가 가장 늦은 지역으로서 향토적인 색채와 삶의 모습이 가장 원형적으로 보존된 곳이기도 하다. 원삼면지는 기존의 문헌 의존도를 낮추고 현지답사와 구술 등을 바탕으로 한 생활사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오랜 농경사회의 생활문화와 노동단위로서 전통문화의 원형질로 평가받고 있는 마을단위 기술방식도 향토문화와 주민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입체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민속 부문에서는 평생의례, 민간신앙, 세시풍속 및 민속놀이, 민간의료 및 금기, 속신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오래 전에 사라진 줄다리기와 거북놀이, 두레놀이, 농기싸움, 쥐불싸움 등의 민속놀이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 지역민들에게 전해오고 있는 각종 질병에 대한 민간요법을 주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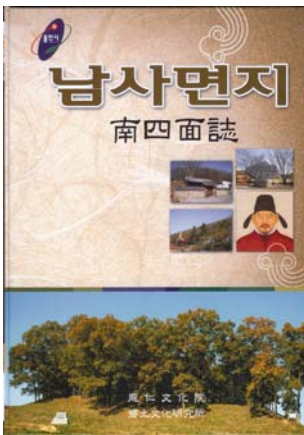
8) 백암면지(白岩面誌)

『백암면지』는 처인구 백암면의 실상과 고금의 향토 자료를 집대성한 지지서로서 2006년 간행하였다. 백암면은 용인의 동부지역에 위치하여 아직도 농업중심의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이로 인하여 정체된 전통 생활이 온전히 보존되고 있어 향토사 연구의 관심지역으로 오랫동안 주목되어 왔다. 급속히 도시화되어 지형지물이 바뀌고 산천의 옛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용인의 서부지역의 현상과 비교해 볼 때 백암지역은 수려한 자연과 농경사회의 전통적인 삶의 자취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어 이를 기록으로 정리하여 남기는 일은 시급한 일이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용인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던 고장이고 부농명촌으로서 인심이 좋았던 지역적인 특성을 간직하고 있었다. 특히 이 책에서는 분묘나 지역의 인물, 지명, 또는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사적인 측면과 민속부분은 여타 읍·면지나 용인시사, 또는 종전의 용인군지에 수록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발굴, 수록하여 읍·면지 기록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민속 부문에서는 평생의례, 민간신앙, 민간의료 및 금기, 속신, 세시풍속 및 민속놀이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민간신앙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고 있는 가정신앙과 마을신앙을 현장 조사를 통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집단 민속놀이도 농경사회에 기반한 다양한 놀이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의 로또복권과 같은 채표(彩票)라는 돈놀이가 있었다고 한다.

9) 남사면지(南四面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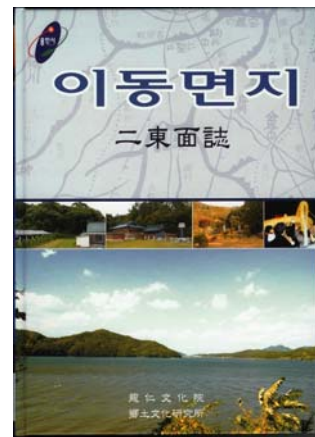


『남사면지』는 2008년 간행되었다. 남사면은 용인의 남부지역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이동면, 서쪽으로는 평택시, 남쪽으로는 안성시와, 그리고 북쪽으로는 오산시와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용인의 원삼, 백암 지역과 함께 전형적인 농업중심의 지역이었으나 면의 서쪽으로 경부고속도로가 통과함으로써 이 지역에도 산업지역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유통단지, 첨단산업단지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오산지역 신도시 건설과 이의 여파로 남사면 북리와 아곡리, 완장리 일대에 개발의 조짐이 강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도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집필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존의 문헌자료나 기록보다도 현장성을 중시하고 지명, 인물, 민속이나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사적 측면의 조사 연구에 충실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용인의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남사지역의 새마을 사업과 새마을 운동에 관한 자료를 심도 있게 조사 수록한 것은 여타 읍면지에서 볼 수 없는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속표지는 북한에서 그려진 처인성 대첩의 기록화를 삽화로 썼다. 민속 부문에서는 각 마을에서 연희되던 두레싸움이나 달맞이 등의 민속놀이가 소개되고 있다. 그 중에도 용인에서 그 전통과 규모에 있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산정동 줄다리기를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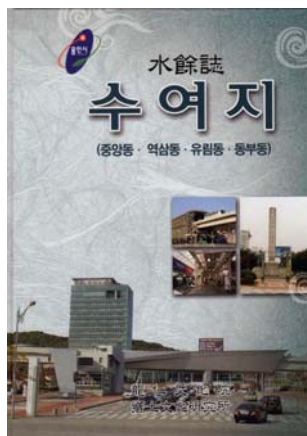
조명하고 있다. 산정동 줄다리기는 전통놀이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이 마을의 줄다리기는 주민간 단합을 다지는 대동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제(堂祭)와 같은 주술적 의미가 강한 엄숙함이 배어 있는 풍습이다. 조선 숙종 때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족히 3백년은 됐을 것이란 추측이다.

10) 이동면지(二東面誌)

『이동면지』는 2007년 발간되었다. 이동면은 용인의 남쪽 지역에 위치하며 개발로 인한 여파가 상대적으로 적고, 용인지역의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지역으로서 특히 이동면 서리의 고려백자요업지를 간직한, 우리나라 도자사에 있어서는 빼 놓을 수 없는 매우 유서 깊은 고장 이라는 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외에도 한덕골과 사리치를 중심으로 한 천주교 성지가 있고, 용덕저수지, 어비리 저수지 등은 농촌의 풍요를 구가하는 수리시설이자 낚시터로도 유명한 고장이다. 또 신라 때의 사찰지로 알려진 용덕사와 동도사의 신라 후기 석탑 등 유서 깊은 문화유적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다. 민속 부문에서는 이동면 각 지역에 분포해 있는 산신제, 서낭제, 우물고사, 느티나무 고사 등 민간신앙과 함께 동해놀이, 두레놀이 등 각종 공동체 놀이가 소개되고 있다.



11) 수여지(水餘誌)



용인시 관내 읍면동의 역사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읍면지 발간 사업은 1998년 <구성면지>로 시작하여 2009년 <수여지>를 마지막으로 11년간 진행되어 온 발간사업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 사업은 용인시의 향토문화자료를 체계적으로 발굴함으로써 향토문화에 대한 연구기반을 확충하고 청소년 및 시민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수여지』는 <수여면지>라는 의미로 용인시가 시로 승격되기 이전의 용인읍 지역

의 옛 이름을 따온 것이다. 현재는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오래 전부터 용인의 정치행정 및 사회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수여지>에는 특히 용인의 역사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1편에서는 삶의 터전과 내력으로 자연과 지리, 역사, 지명 유래 등을 신고 있고, 2편에는 삶의 자취로 문화유적 및 보호수를 비롯하여 석비 기념탑, 유교유적, 분묘 등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있다. 3편에는 삶의 주체로 세거성씨와 인물을 신고 있으며, 4편에는 삶의 틀로 정치행정, 보건의료, 복지, 경제산업, 사회단체 등을 다루고 있다. 5편에는 삶의 내용으로 종교, 교육, 체육, 문화예술, 지역 언론을 다루고 있고, 6편에는 삶의 방식으로 생활과 민속을 조사하여 신고 있다. 7편에는 삶의 이야기로 구비전승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마을지 특집으로 버드실 마을을 소개하고 있으며 김량시장, 수여선 협궤열차, 일제시대의 용인 등을 담고 있다. 민속 부문에서는 다른 읍면지와 마찬가지로 통과 의례 및 민간신앙 등을 다루고 있지만 지역 특성상 용인의 중심지로서 60년대 이후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고 외부 인구의 유입으로 전통문화가 일찍이 단절된 탓에 전승되고 있는 민속적인 요소가 많지 않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동부동 일부지역(운학동 등)의 민간신앙과 용인의 대표적인 무속신앙으로 전승되고 있는 할미성대동굿 등을 소개하고 있다.

3. 구술사 『용인사람 용인이야기』 발간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고, 마을이 하나 없어지면 박물관 하나가 사라진다는 말이 있듯이 연륜 있는 노인은 평생 우리 사회를 통찰해 오신 지역사 정보의 보고(寶庫)이다. 그러므로 노인들 자신의 과거 경험들을 기억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역사 복원의 방안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오늘날 역사연구의 한 분야로 널리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지역사를 복원하고자 할 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사료의 발굴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중앙의 역사가 지방의 역사를 주목하지 않다 보니 지역의 사료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근대화 이전과 이후 오랫동안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로 인해 지역의 역사는 간과되거나 무시되어 사료 자체가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즉 지역의 역사가 지엽적이라거나 보편적이지 않다고 해서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체가 실시되고 지역의 정체성 확립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사의 체계적인 정립은 너무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무엇보다 지역민들 스스로를 역사 행위자, 즉 역사의 주체로서 그 중심에 놓고 새롭게 재구성하는 역사서술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술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지역의 사료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구술생애사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인 것이다.

용인문화원에서는 읍면지 발간사업이 2009년 『수여지』를 마지막으로 11년 동안의 대장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2010년부터는 지역 원로들을 대상으로 『용인사람 용인이야기』라는 표제로 구술사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매년 10여명의 분야별 원로들을 선정하여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그 분들의 말씀을 채록하여 기록해 오고 있다.

한 개인이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일은 개인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가 살았던 시대나 사회의 역사이기도 하다. 특히 격변기를 거쳐 온 이들에겐 당시의 기억은 훗날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겪은 경험은 미래세대의 소중한 보물일 수밖에 없다.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격변기의 중심에 있었다면 그 가치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2010년부터 2년 동안은 지역 원로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구술사를 제작하였으며, 2012년에는 일제의 근로 징용과 여성위안부 강제 징집 등 일제강점기 용인지역의 피해 상황을 조명하였고 2013년에는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 한국전쟁 시기 용인의 시대상을 기록하였다.

2010년과 2011년 발행된 『용인사람 용인이야기』 1~2집은 1945년 해방기를 거쳐 6·25 한국전쟁과 5·16 군사쿠데타, 그리고 새마을운동과 군사정권을 두루 거친 분야별 원로들의 삶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1집의 내용을 살펴보면, 용인의 첫 중등사학인 태성중학교를 1회로 졸업하고 당시 양지초 대대분교를 시작으로 교직에 투신한 김기창, 1970년 시작된 새마을운동을 전국새마을운동의 모범으로 만든 김종, 임시작 ‘촉탁’ 공무원으로 시작해 용인군수를 거쳐 경기도 내무국장 등을 두루 거친 박명서 전 군수, 인삼작과 운수업으로 평생을 바친 이상명, 용인문화원 사무국장과 향토문화연구소장을 거쳐 용인향토학교를 이끌어 온 이응준, 재건국민운동중앙회 용인지부 간사를 거쳐 천주교 용인성당 사목협회 총회장을 지낸 이재학, 구성보건지소장을 역임함 용인 최초의 여의사 정최염, 용인군정자문위원과 초대 용인군의회 의장을 지낸 조원행, 11·12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을 지낸 조종익, 용인 웃다리 백암농악의 명인 차용성 선생 등이다. 2집에도 공무원, 수의사, 양조장 주인, 정치인, 예편군인, 교육자, 인

삼재배 농부 등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2012년에 발행된 『용인사람 용인이야기』 제3집은 일제강점기 용인에서 벌어졌던 일제의 만행이 생생한 구술을 통해 기록되었다. 일제 강점기라는 시기를 주제로 11명의 원로를 선정하여 일제의 근로 징용과 강제징집, 식량 공출 등 일제 강점기의 시대상을 조명하는 구술사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구술자들이 대부분 연로한 관계로 면담자들이 수차례에 걸쳐 채록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다. 3집의 내용은 일제 강점기 여성생활, 일제시대의 유림, 북해도 탄광 징용, 함북 경성 30마차부대 징병, 청진 제철소 징용, 평택 비행장 징용, 숯가마 개발, 우시장 중개상, 북해도 탄광 징용, 남양군도 징용, 미군포로(뉴욕) 생활, 일제시대의 학교교육, 일제시대 보따리 장수 등으로 용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징병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어떤 사람은 침략전쟁에 동원돼 강제노역을 당했는가 하면, 전장의 총알받이로 내몰려 구사일생으로 되돌아 왔다는 구술도 나왔다.

『용인사람 용인이야기』 4집은 우리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 한국전쟁 시기 용인의 시대상을 조명하는 구술사 작업이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죽전리 오폭 사건의 기억, 전쟁의 사선에서 되찾은 자유, 참전용사에서 자유투사로, 송문리 마을 의용군과 국군의 기억, 주북리의 작은 한국전쟁, 소년병 지리산 토벌대 참가, 실종 남편을 기다리며 지켜온 중부의 삶 등 다양한 내용이 실려 있다.

‘마을지와 민속놀이’ 라는 주제로 이루어지는 포럼인 만큼 본고의 서술 방향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되겠지만 읍면지 발간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읍면지 발간 당시에 누락되어 아쉬움이 많았던 내용들에 대한 보완의 의미도 담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4. 읍면지에 소개된 주요 민속놀이

용인의 11개 읍면지에서는 민속과 관련하여 평생의례, 가정의례, 마을의례, 세시풍속 등 각 지역의 민속적인 요소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연희되지 않는 민속뿐만 아니라 지역민조차 그 존재여부를 모르고 있는 민속놀이를 상당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11개 읍면지의 사료적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11개 읍면지 가운데 마을 공동체문화로서 소개된 민속놀이 가운데 가장 일

반적인 것이 정월대보름 줄다리기이다. 줄다리기와 더불어 농악놀이이나 동회놀이, 척사대회가 부수적으로 이루어진다. 줄다리기는 마을 주민들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두루 참여하는 공동체 놀이자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민속놀이 만큼 용인지역의 마을 공동체문화로서 민속놀이가 지닌 전승 양상과 문화적 기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줄다리기는 마을의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하여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유일한 놀이였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공동체놀이라 할 수 있다. 또 줄다리기의 줄은 암수 형태의 쌍줄이 중심을 이루며, 대부분 남녀로 편을 나눈다. 그리고 지역민들은 줄을 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농악은 줄을 당기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지신밟기의 연장선상에서 대보름 놀이를 이끌어가는 핵심이다. 용인에서 동회놀이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다만 한 두 개의 마을에서만 전승되고 있을 뿐이다.

용인 지역에서 기존의 정월대보름 줄다리를 보면, 예전에 남사면 완장리, 구성면, 용인을 김량장리에 대규모 쌍줄 형태의 줄다리가 있었으나, 1920~1930년대에 소멸되었다. 1990년에는 용인읍 삼가리, 내사면 양지리, 이동면 시미리 등에서도 줄을 당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동면 천리의 샘골 줄다리기는 풍년을 기원하는 위아래 마을의 암수 줄다리기였으나 1931년에 소멸되었고, 남사면 봉무 1리 내기동줄다리기는 남녀 대항 쌍줄 형태이었으나, 역시 전쟁 이후에 소멸되었다. 따라서 용인은 다양한 지역에서 줄다리가 전승되었으나 대부분 전승이 중단되었다.

한터마을은 풍부한 민속이 전승되는 마을로 놀이의 중단, 인위적 재현, 다시 중단의 과정을 거친다. 삼배울 마을은 한터마을의 민속놀이를 모방 재현하여 새로운 형태로 창출하고 있다. 산정마을과 지장실 마을은 외연을 확장하여 마을 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내어둔 마을은 비교적 전통적 놀이방식을 고수해 왔으나 대내외적인 도전과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죽전동 일대에서 500여 년을 이어왔던 전통놀이 줄보맥이는 2009년 복원돼 경기민속예술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죽전 줄보맥이 놀이는 화합과 풍요를 기원하는 공동체 축제로 정월대보름 대동제 형식으로 펼쳐져 왔다. 이 행사에 필요한 자재인 벚짚은 가가호호 공출할당 했으며 마을 계에서 새끼줄 꼬기에서부터 용(龍)줄을 만들었다. 용줄 위에 타는 사람은 마을회의를 통해 남자 2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람은 신랑과 각시로 분장하였다. 전국적으로도 독특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은 행사 후 줄의 용도이다. 죽전의 풍요한 풍년농사를 기원하며 농업용수의 확보를 위해 현 죽전교 아래에 줄다리기 줄로 보를 막아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사용됐다고 한다.

또 백암면에는 백중제가 있다. 백중(百中)은 농부들이 봄부터 여름까지 논밭 일을 하다가 음력 7월 보름에 일손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는 날로,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고 각종 놀이를 즐기며 하루를 보내던 농민들의 여름철 명절이다. 백중을 백종(百種)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백곡지종(百穀之種)의 줄임말로 백 가지의 곡식이 성숙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백중날이면 김매기를 끝낸 기쁨을 축하하기 위해 호미씻이(洗鋤宴)를 하는 풍습이 있었고 머슴을 둔 집에서는 이날 하루를 쉬게 하며 취흥에 젖게 했다. 백중날 물을 맞으면 피부병도 낫고 속병도 고치며 더위도 먹지 않는다는 속설도 있었다.

백암장터에서는 백중장(百中場)도 열렸는데, 백암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의 용인, 죽산, 이천 사람들까지 몰려들어 난장판이 벌어졌고, 각종 공연을 비롯하여 흥미 있는 오락과 흥행이 있어 농사에 지친 머슴과 농사꾼들이 마냥 즐길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날을 머슴날, 또는 머슴들의 생일이라고도 했다. 특히 백중장에서 열리는 농악놀이와 씨름대회는 유명했다. 마을 단위의 농악경연이 벌어졌고 머슴과 농민들이 참여하는 씨름대회에서 우승하면 송아지를 부상으로 받았다. 그래서 오늘날 백암농악은 용인의 유일한 옷다리 풍물로 전승되어 오고 있고, 용인의 각 초·중·고등학교 씨름단이 20여 년 동안 전국대회를 석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용인백옥쌀씨름단이 전국씨름선수권대회 등 각종 대회를 제패하고 있다.

5. 읍면지 평가와 과제

지금까지 용인시의 읍면지 발간사업과 그 과정에서 발굴된 민속놀이 일부를 살펴보았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을 몇 가지 들어 보고자 한다.

우선은 읍면지 발간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1990년대는 용인시가 급속도로 도시화 되는 시점으로 수리지구의 경우 난개발이라는 불명예스런 여론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자연마을이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되었고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보상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상황이었다. 이때 시급히 읍면지를 발간하여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인식에서 1998년 전국 최초로 읍면지 간행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초기에 발간된 『구성면지』, 『기흥읍지』, 『수지읍지』의 경우, 오늘날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과거의 역사책이 되고 말았다. 지명이나 마을의 구성,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인문지리 환경 등이

지금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삭막한 도회지로 변모하여 그 흔적조차 확인할 수 없다. 그런 만큼 읍면지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수록한 자료로서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읍면지에 수록된 민속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은 그 조사방법이 문헌기록은 물론 지역민들의 제보와 증언을 바탕으로 기술되었으므로 지역문화를 연구하거나 재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용인문화원과 지역민이 함께 복원하여 경기민속예술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죽전 즐보맥이’의 경우 2002년 간행된 『수지읍지』에 소개되고 있고, 2011년 복원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는 백중문화제 역시 2006년 간행된 『백암면지』에 소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용인시 읍면지는 11개 읍면의 역사와 자연환경을 비롯하여 정치, 행정, 사법, 치안, 산업경제, 복지, 교육, 문화예술, 종교, 인물, 민속, 통과의례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정리하고 있는 만큼 『용인군지』나 『용인시지』 등 기존의 향토사료에서 소개하지 못한 다양한 자료들을 발굴하였다는 것이 큰 성과이기도 하다.

그런 반면 용인시 읍면지의 문제점도 많이 발견된다. 무엇보다 자연마을의 영역을 넘어 읍면이라는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마을 단위의 독특한 정서나 이질적인 환경이 무시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고, 반대로 각 읍면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이웃 읍면이나 더 넓은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고려되지 않은 점도 나타난다.

또한 다양한 집필자가 각자 정해진 분야에 대한 조사만 하다 보니 마치 백과사전식 자료 수집의 모양을 띠고 있다. 즉 상호 통합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단순히 모아지는 구조로서 특정한 문화 요소가 다른 문화 요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분야별로 많은 자료가 수록되기는 하였지만 지역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집필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 인력의 부족, 향토연구자와 주민들 간의 인식의 차이(특히 문중 관련), 회계연도로 인한 조사 기일의 촉박, 『용인시지』나 다른 향토자료들과 중복되는 내용, 행정기관의 예산에 대한 낭비적인 시각, 일회적이고 전시적인 효과 기대, 간행 이후의 활용도 미흡 등의 문제점도 들 수 있다.

그러나 용인시의 읍면지가 초창기에 출간되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이 있기도 했지만 오늘날 중요한 지역사로 평가되고 있고,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마을지 발간사업의 모범으로 벤치마킹을 해가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자부심시키기도 하다.

앞으로 용인시는 읍면지를 토대로 농촌의 자연마을을 조사 연구하여 지역 문화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40여 년 전 용인시 전체 인구의 80%에 이르던 농촌인구가 오늘날 5%에 불과하고, 그나마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65세를 넘는 고령화로 치닫고 있어서 머지않아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수많은 마을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마을들이 오늘날 중요한 학술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성남의 마을조사와 마을지 활용

윤 중 준²⁵⁾

머리말

성남의 마을조사와 마을지 발행은 총 9년에 걸쳐 이루어 졌다. 성남의 특징은 1970년대를 전후로 전형적인 시골 마을에서 급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어 전통마을의 붕괴와 신도시의 조성으로 인한 문화의 단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조사 당시는 향토문화연구소)²⁶⁾ 중심으로 이루어진 마을 조사는 과거 성남시가 광주군이었던 시절의 행정구역 단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원고는 용인문화원에서 발행한 <용인문화>(2014년 5월)에 소개한 ‘개발로 사라진 전통마을을 마을지에 되살려 낸 성남사례’와 2014년 9월 17일 발표한 ‘경기지역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경기지역학 현황과 과제’²⁷⁾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이 자료에 실제 활용한 사례를 추가하여 작성하였다.

1. 성남의 역사적 배경

성남시는 경기도 광주군에 속한 돌마면(突馬面), 낙생면(樂生面), 대왕면(大旺面), 세촌면(細村面) 등이 1973년 7월 1일자로 성남시로 승격되어 2013년 현재 수정구(壽井區) · 중원구(中院區) · 분당구(盆唐區) 3개 구와 48개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다. ‘성남’은 남한산성 남문 아래에 있어 붙여

25) 윤중준 : 세종대학교 대학원 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성남서원문화의집 관장

26)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는 1995년 향토문화연구소로 문을 열었고, 2014년 12월에 성남학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성남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 사업을 수행하여 2014년 까지 19회의 학술회의, 12회의 학술토론회, <성남문화연구> 논문집 21호 발행, 향토문화총서(마을지)9권, 성남시향토유적 지정 청원(1호~10호), 판교 마을 거리 및 시설물 명칭 제정 용역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27) 성남학연구의 성과와 발전과제(2014. 9. 17)

진 것으로 ‘성내미’ 혹은 ‘성나미’ 라고 부르기도 한다. 1946년 광주군 중부면에 성남출장소가 설치되면서 성남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인 행정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²⁸⁾

1961년에는 예비역 육군 대령 김창숙에 의하여 ‘모란개척단’ 이 만들어져 현재 모란시장 주변의 황무지 개간 및 단대천 제방 쌓기 자활사업이 시작되었고, 1969년 8월 1일에는 광주군 성남지구 도시건설사업소가 설치되었으며, 1970년 1월 24일 광주대단지사업소가 설치되어 서울시의 무허가주택 강제철거를 위한 사업이 전개되었다.

1969년 5월부터 71년 8월까지 서울에 살던 철거민 126,215명이 경기 광주대단지(지금의 성남시 일대)로 강제 이주됐다. 인구는 14만 명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반 시설을 전혀 조성하지 않았고, 이주민들은 상하수도 시설조차 없는 곳에서 천막이나 판잣집을 지어 생활해야 했다. 1971년 6월 조사 당시 취업대상자의 5%만이 단지 내에서 직업을 가질 정도로 지역 경제기반조차 없었다. 하지만 살 곳을 찾던 각 지역 빈민의 유입이 급증하였고, 1971년 8월경의 거주인구는 15~17만 명까지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비용 회수를 위해 서울시는 용지 처분을 서둘렀고, 1971년 총선이 끝나자 서울시는 분양증 전매 금지와 함께 높은 가격의 토지대금 일시상환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불만이 고조된 주민들은 1971년 8월 10일 최소 3만 ~ 최대 6만에 이르는 대규모 궤기대회를 열고, ①백원에 매수한 땅 만원에 폭리 말 것, ②살인적인 불하 가격 결사반대, ③공약 사업 약속 말고 사업하고 공약할 것, ④배고파 우는 시민 세금으로 자극 말 것, ⑤이간 정책 쓰지 말 것 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방문하기로 약속한 서울시장이 오지 않자 흥분한 주민들은 성남사업소, 출장소, 파출소 등 평소에 반감을 지닌 관공서를 파괴·방화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기동경비대와 투석전을 벌이며 대치했고, 차량을 이용한 서울 진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사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양택식 서울시장은 당일 투쟁위원회 간부와의 협상에서 구호양곡 확보, 생활보호자금 지급, 도로 확장, 공장 건설, 세금 면제 등을 시급히 합의하였고, 오후 늦게 이 소식을 들은 시위대는 해산하였다. 광주대단지사건 과정에서 검거된 총 22명의 주민은 징역 2년 이하를 선고받았다.²⁹⁾

광주대단지는 대한민국 최초의 계획도시사업이었으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생성된 대규모 도시 빈곤층의 생존위협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준 빈민운동의 시발점으로 평가된다.

28) 윤종준, 한춘섭, 『내고장 성남』 6차 개정판, 성남문화원, 2013. 3. 29

29)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윤종준, 한춘섭, 『내고장 성남』 6차 개정판, 성남문화원, 2013. 3. 29

고건 전 국무총리는 그 당시 내무부 지역개발담당관이었으며, 광주대단지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광주대단지 사건은 우리나라 도시 개발 과정에서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선(先)개발, 후(後)입주 원칙은 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죠.”³⁰⁾

지금 성남시는 옛 광주대단지와 1990년대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한 주택 200만호 건설 사업으로 분당신도시가 만들어지고, 현재 분당 · 판교 · 위례신도시를 아우르고 있으며, 인구는 98만 명으로 전국 10위권 규모의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2. 성남문화원의 마을조사

경기도 광주군의 한적한 농촌사회가 1960년대 말, 서울시의 철거민 강제이주 사업으로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여 1971년 광주대단지사건이 발생되고, 1990년대 분당신도시와 최근 판교 신도시 건설 및 위례신도시 건설로 이어지면서 전통마을은 철저히 파괴되고 원주민들에게 계승되어 오던 전통문화 또한 말살되고 말았다. 이에 성남문화원은 사라져 가는 마을의 문화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마을지’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성남향토문화총서>시리즈로 발간하였다.

○ 마을조사 사업의 취지 : 이 사업은 조선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편찬하였던 『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다양한 지리서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당시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정신을 이어 받아 현대의 우리 고장 역사, 행정, 지리, 문화 등을 정리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었다.³¹⁾

○ 추진 주체와 기간 : 이 사업은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의 연구위원들을 중심으로 2001년부터 2009년 까지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사전 준비회의와 평균 5회 이상의 현장답사와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추진하여 총 9종의 마을지를 발행하였다.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에는 소장 1명, 상임연구위원 1명 외에 10명 내외의 연구위원이 2년 임기로 위촉되어

30) 중앙일보 2013년 4월 2일, 「고건의 공인 50년(35) 71년 광주대단지 사건 ②」

31) 『돌마마을지(하)』 발간 회의 자료, 성남문화원, 2008. 3. 13(목) 10:30

활동한다. 연구위원은 역사, 문화일반, 문학, 예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성남이 지닌 도시발전의 특성상 도시계획학이나 봉수복원을 위해 토목건축 관련 전문가도 위촉한다.

3. 성남문화원의 마을조사 결과물 <마을지> 소개

2001년부터 209년까지 연1권씩 성남문화원이 발행한 마을지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남문화원의 마을 조사는 예산 여건상 광범위한 지역을 동시에 진행하지 못하고 일정 구역을 나누어 연차적으로 수행하였다.

조사 구역을 나누는 기준은 성남이 옛 광주군에 속해 있을 때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였고, 마을지의 명칭도 대체로 그에 따랐다.

(1) 성남향토문화총서1 (성남의 마을신앙과 가정신앙-성남시 민간신앙 조사보고서)

성남시 원주민들의 전통 민간신앙에 대하여 관내 3개 구별로 마을신앙과 가정신앙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고, 그 성격과 의미를 분석한 자료집이다. 부록으로 <민간신앙일람표>를 첨부하였다.

발행일 : 2001. 2. 20

주요내용 :

- 제1편 조사개요

- 제2편 마을신앙

마을신앙의 성격과 의미 / 수정구의 마을신앙 / 중원구의 마을신앙 / 분당구의 마을신앙 / 조사 결과의 분석

- 제3편 가정신앙

가정신앙의 성격과 의미 / 수정구의 가정신앙 / 중원구의 가정신앙 / 분당구의 가정신앙 / 조사 결과의 분석

- 부록 : 성남지역 민간신앙 일람표

(2) 성남향토문화총서2 (관교마을지)

발행일 : 2001. 12. 31

주요내용 :

- 제1장 판교의 자연환경
자연적 위치 / 지질과 지형 / 기후 / 면적 / 판교의 지명유래
- 제2장 판교의 역사
지방사의 개념과 자료 / 판교의 역사적 개관 / 조선시대의 교통로와 판교 / 조선시대의 장시와 낙생장 / 판교인물
- 제3장 판교의 생활과 문화
판교의 의식주 생활 / 세시풍속과 놀이 / 일생의례 / 판교의 민간신앙
- 제4장 판교마을의 실태조사
판교 마을의 개황 / 판교 마을 개발의 문제점 / 판교 조사 마을의 지역 특성 / 판교 마을의 실태

(3) 성남향토문화총서3 (판교마을지)

판교지역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마을지로서 전근대사회 판교지역의 지리, 생활과 문화, 판교 지역의 문학, 판교 지역의 실태 1(삼평, 백현, 궁내동), 판교 지역의 실태 2(운중, 석운, 대장, 하산운동)를 수록하였고, 부록으로 <판교 및 성남의 인물 연구사>가 정리되어 수록되었다.

발행일 : 2002. 12. 31

- 제1장 들어가는 말
- 제2장 전근대사회 판교지역의 지리
- 제3장 판교의 생활과 문화
- 제4장 판교 지역의 문학
- 제5장 판교 지역의 실태 1(삼평동. 백현동. 궁내동)
- 제6장 판교 지역의 실태 2(운중동. 석운동. 대장동. 하산운동)
- 부록 판교 및 성남의 인물 연구사 정리

(4) 성남향토문화총서4 (대왕마을지)

『대왕마을지』에는 대왕마을의 자연·인문환경, 문화유적, 대왕마을인의 삶과 문학, 지명으로 풀어 본 대왕마을, 대왕마을의 일상사적 접근 등이 소개 되었다.

발행일 : 2004. 12. 30

- 제1장 들어가는 말
- 제2장 대왕마을의 자연. 인문환경
- 제3장 문화유적에 나타난 대왕마을
- 제4장 대왕마을인의 삶과 문학
- 제5장 자명으로 풀어 본 대왕마을
- 제6장 대왕마을의 일상사적 접근

(5) 성남향토문화총서5 (북정, 창곡동, 태평동 마을지)

발행일 : 2005. 12. 20

- 제1장 들어가는 말
- 제2장 마을의 역사
- 제3장 마을의 문화유적
- 제4장 마을의 정치. 경제. 사회
 - I. 마을의 정치와 사회 / II. 마을의 주요기관과 시설 / III. 마을의 생업과 경제
- 제5장 마을의 생활과 문화
 - I. 의식주 생활 / II. 세시풍속 / III. 일생의례 / IV. 민간신앙 / V. 놀이와 여가생활

(6) 성남향토문화총서6 (금광, 단대, 상대원 마을지)

『금광·단대·상대원마을지』에는 실제로 금광동, 단대동, 상대원동 외에 신흥동, 산성동, 양지동, 은행동 등 7개동에 관한 마을지로 편찬되었다. 이 지역은 광주대단지사업 이후 성남시 초창기에 형성된 지역이다. 마을의 역사, 지명유래, 세거성씨, 지리적 환경과 문화유적, 분야별 주요기관과 사회적 기능, 전래풍속(세시풍습, 민간요법, 떡거리, 전통상례, 전통혼례), 성남시 재개발 현황과 방향이 소개되었다.

발행일 : 2006. 12. 30

- 제1장 마을의 역사
 - 1. 상고시대부터의 전래 역사 / 2. 근대화 이후의 마을 역사
- 제2장 상대원동 마을지

◎마을의 역사와 지명 및 세거성씨

1. 금광동/ 2. 상대원동/ 3. 신흥동 / 4. 단대동/ 5. 산성동/ 6. 양지동/ 7. 은행동

◎광주군 동족집단 상황

- 제3장 마을의 지리적 환경과 문화유산

1. 지리적 환경 / 2. 문화유적 / 3. 행정구역의 변천사 / 4. 도로 등 생활환경

- 제4장 마을의 주요기관과 사회적 기능

1. 주민자치와 동사무소 / 2. 행정기관 / 3. 보건 및 의료기관 / 4. 사회복지복지기관 / 5. 교육기관 / 6. 문화정보기관 / 7. 체육 및 공원시설 / 8. 산업경제와 생활 / 9. 이웃 사랑의 실천-자원봉사활동 조직

- 제5장 전래풍속(傳來風俗)

1. 풍속에 대한 총설 / 2. 세시풍속 / 3. 민간요법 / 4. 먹거리 / 5. 전통상례 / 6. 놀기 / 7. 전통혼례 / 8. 기타풍속

- 제6장 성남시 재개발 현황과 방향

1. 주택재개발 사업 / 2. 주거환경개선사업 / 3. 성남시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 4. 결론

(7) 성남향토문화총서7 <돌마 마을지(상)>

- 하대원동, 갈현동, 도촌동, 여수동, 야탑동, 이매동 -

『돌마마을지』는 두 권으로 발행하였는데, 돌마지역은 중원구 하대원동, 갈현동, 도촌동, 여수동과 분당구 야탑동, 이매동 지역을 상권으로 발행하였다. 이 책자에는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 민속, 지명유래, 세거성씨, 경제활동, 마을의 주요 기관과 사회적 기능을 소개하였다.

발행일 : 2007. 12. 30

- 제1장 돌마 지역의 역사와 문화

1. 성남지역의 역사와 돌마 / 2. 돌마지역의 문화유산 / 3. 돌마지역의 민속

- 제2장 돌마면의 지명유래

- 제3장 돌마면의 세거성씨

- 제4장 성남의 경제활동 현황

1. 성남의 경제연혁 / 2. 성남의 경제 현황 / 3. 성남 경제의 미래 / 4. 성남경제 관련 단체 및 기타 소개

- 제5장 마을의 주요 기관과 사회적 기능

1. 마을의 조직 / 2. 각 주민센터(동사무소) 현황 / 3. 행정기관 / 4. 의료 및 복지기관

5. 교육기관 / 6. 문화예술기관 / 7. 기타

(8) 성남향토문화총서8 <돌마마을지(하)>

-분당, 서현(율동마을), 수내, 정자동-

발행일 : 2008. 11. 28

- 윤종준 '돌마 지역의 역사와 문화'

- 한동익 '돌마면의 유래'

- 한동열 '세거성씨와 인물'

- 전봉구 '마을 주요 기관(1)'

- 김형진 '마을 주요 기관(2)'

(9) 성남향토문화총서 9 (낙생마을지)

옛 광주군 낙생면(현재 분당구 동원동, 금곡동, 궁내동, 삼평동, 백현동)과 구미동(용인 수지면 구미리)의 역사와 문화, 문화유산, 지명유래, 세거성씨 집성촌 및 인물, 마을의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마을의 주요기관을 수록하였다.

발행일 : 2009. 11. 30

- 제1장 낙생면의 역사와 문화 - 문수진

- 제2장 낙생지역의 문화유산 - 윤종준

- 제3장 낙생마을 지명 - 한동익

- 제4장 낙생지역 세거성씨 집성촌 및 인물조사 - 정재영

- 제5장 마을의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전봉구

- 제6장 마을의 주요기관 - 이보영

3. 마을지의 활용사례

마을지 편찬사업을 통해 거둔 성과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 두드러진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민속 문화 발굴과 보존 전승

성남이 시로 승격되기 전의 성남지역은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했기에, 민속놀이도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전승되어 왔고, 가족의 건강과 마을의 안녕,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민속이 일상생활 속에 뿌리내려 왔다. 성남의 여러 민속놀이 가운데 대표적 민속으로 분당구 이매동의 ‘이무술 집 터 다지는 소리’와 분당 구미동의 ‘오리뜰 두레농악’, 그리고 판교 지역에 전승되어 온 ‘판교 쌍용거줄다리기’가 있다.

이러한 민속놀이는 마을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증언 등을 통해 복원하였고, 현재 보존회를 만들고 해마다 주요 행사에서 공연하고 있다.

※ <사례1> 구미동 오리뜰농악 복원 및 전승

‘오리뜰’은 분당구 구미동의 옛 지명인 광주군 낙생면 구미리의 평야 이름에서 유래했다.

오리뜰 농악은 1940년대부터 70년대 말까지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뜻에서 농번기와 농한기를 가리지 않고 전승되다가 1989년 분당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자취를 감췄다. 오리뜰 농악은 노동과 놀이가 결합한 두레농악 형태로 화려한 쇠가락과 버꾸놀음이 특징이다. 상모 병거지의 꽃을 빨간 색으로 장식했고, 병거지 윗면에 금속장식을 사용해 기능성과 화려함을 더했다. 특히, 사채가락을 사용하여 입장을 하고, 大자진, 十자진 등 특이한 진풀이가 자주 등장해 관객들의 흥을 돋우며, 신명나는 분위기를 연출해 시원하고 생동감 있는 농악놀이로서의 진수를 보여 준다.

평상시에는 주로 ‘육띠기(쇠. 징. 제금. 북. 장구. 호적등으로 연주하는 형태)’ ‘삼잡이(제금. 장구. 호적) 등으로 주로 굿거리 가락을 연주하는 형태’로 연주했으며, 이때 ‘건달춤’이라는 춤을 추며 짚지패 가락을 사용해 재미를 더했다.

성남문화원과 성남농악보존협회를 중심으로 1960년대 당시 농악 연희자들인 장양천씨 등을 통해 고증에 성공하여 2007년 문화관광부의 ‘전통예술 복원사업’으로 선정되었고, 현재 오리뜰 농악을 복원하여 전승하고 있으며

향후 성남시무형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례2>판교 쌍용거줄다리기 복원

쌍용거줄다리기는 정월 대보름날 너더리(판교동)에서 행해졌던 줄다리기이다. 김광영씨의 증언에 의하면, 판교동에는 1970년대 초반 경부고속도로가 나기 전에 길을 가로지르는 신작로를 따라 길게 시장이 형성되고, 이곳에서 정월 대보름에 줄다리기가 행해졌다고 한다.

정월 대보름이 되기 여러 날 전부터 마을의 남자들은 당산나무 아래 모여 줄을 꼬아 굵게 수십 미터가 넘도록 만든다. 줄을 꼬는 데에는 마을 주민 3~4명이 약 1주일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시간을 맞추어 줄을 꼬았다. 정월 대보름날 저녁, 주민들은 당산나무 앞에서 한해의 풍작을 기원하는 마을제사를 지낸 후 시장터에서 줄다리를 했다. 이에 앞서 마을 안길에 쌍룡의 용두를 맞대어 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축문을 읽는다. 청룡줄에는 기혼 남성이, 황룡줄에는 여성과 미혼 남성이 한 편이 되어 각각 세 번씩을 당긴다. 여성 황룡 줄이 두 번을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속신 때문에 대체로 황룡 줄이 이기도록 힘을 쓰는 편이다.

판교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이 줄다리기 민속도 없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성남문화원에서 보존 전승을 위해 보존회 조직과 더불어 매년 정월 보름날 민속행사로 치러지게 되었다. 또한 줄다리기 전에 행하는 마을 고사도 예전과 같이 재현되었다.

(2) 지명유래 조사와 활용

①전통마을에 전승되어 오는 지명유래 조사는 신도시 건설 후 공원, 학교, 교량, 육교, 도로 등의 지명을 제정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게 됨 - 성남문화원에서 판교신도시 주요 도로 및 시설물 명칭 제정 용역 수행, 여수동 보금자리 주택단지 명칭 제정 등³²⁾ ②잘못된 지명을 바로 잡는 길잡이(맹산의 본래 명칭은 영장산임), ③ 새로운 역사적 사실 확인-탄천 지명유래에 동방삭설화는 잘못된 것이며, 숲과 관련이 있음. 김유신 장군의 성부(星浮)설화의 현장이 경주가 아니라 성남 성부산(星浮山)임

32) 성남문화원, 『판교마을의 생활문화지도』, 2004. 2. 27
 성남문화원, 『판교신도시 마을 및 시설 이름붙이기』, 경기도·성남시·한국토지공사, 2006. 7
 성남 여수지구 명칭제정 : 2012년 8월

※ <사례> 판교신도시 마을 및 시설 이름붙이기

2006년 7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성남시로부터 용역을 받아 판교 신도시에 들어서는 학교, 육교, 교차로, 지하철도 등등의 각종 시설물과 도로명을 제정할 때 성남문화원의 마을 조사 성과물 및 연구 인력이 활용되었음.

- 제1장 판교신도시 지명제정 진행일정
2005년 5월 31일~2006년 7월 8일 까지
- 제2장 이름 붙이기 개요
옛 지명에서 유래한 이름 - 전통성과 역사성 고려한 이름 붙이기
판교신도시만의 이름 - 독창적인 이름 붙이기
내용과 어감이 어울리는 이름 - 쉽게 기억되는 이미지의 이름 붙이기
- 제3장 간행사
- 제4장 판교 지역의 역사적 고찰
- 제5장 판교 옛지명 조사
- 제6장 판교 지명(복수안)
- 제7장 판교 지명(1차안)
- 제8장 판교 지명(2차안)
- 제9장 판교 지명(3차안)
- 제10장 판교 지명(최종안)
- 제11장 판교 지명(최종확정안)

(3) 집성촌과 역사인물 조사

마을지 편찬을 통해 역사 인물 발굴. 성남시향토유적 제1호부터 10호까지의 인물 지정, 동천 남상목 의병대장(국가보훈처에서 2008년 1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 2010년 『성남인물지』 800여명 소개 자료 발행. 1991년 순직한 이상희 공군대위 등 역사인물 발굴, 성남시 세거문중협의회 결성.

※<사례1> 성남인물지 발행(2010년 7월 5일)

성남인물지는 2년에 걸친 자료조사와 마을지 조사 성과를 토대로 발행되었으며, 당초에는 정6품 이상의 해방이전 인물과 독립운동가 등 약 600여명의 역사인물을 수록할 예정이었지만 최종 조사결과 830여명의 인물이 조사되었음.

※<사례2> 세거문중협의회

성남학연구소 한동익 소장을 중심으로 문중협의회를 조직하여 현재 성남시 관내 50여 문중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문화 행사 등에 참여

※<사례3> 잊을 수 없는 사람, 이상희 대위

“추락 ... 탈출 하겠다 ... 전방에 마을이 ... 탈출불가 ... ”

1991년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경, 광주(光州)상공에서 제1전투비행단 소속 F-5A가 추락할 때 산화한 23살의 고 이상희(李上熙) 대위가 마지막 남긴 절박한 외침이다. 성남 분당구 야탑동의 상희공원은 이상희 대위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그의 고향 마을에 조성되었다. 이 대위는 자신의 비행기가 민가 쪽으로 추락하는 것을 깨닫고 탈출을 포기한 채 끝까지 조종간을 당겨서 민간인들의 피해를 막았다. 당시 이상희 대위는 중위 계급을 달고 기종 배치를 위한 전술기동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교관인 한모 대위의 인도를 받아 훈련을 마치고 착륙을 준비하던 중 한 대위의 비행기를 들이받고 추락하게 되었다. 한 대위는 낙하산으로 탈출에 성공했지만 이 중위는 민가로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을 깨닫고 비행기의 방향을 돌리다가 결국 산화하고 말았다. 그의 집이 야탑동이었다.

故이상희 대위는 추락시 전투기가 민가 밀집지역으로 추락할 것을 우려해 끝까지 비상탈출을 하지 않고 조종간을 잡은 채로 광주 서구 유덕동 덕흥마을 집단가옥 옆 미나리 밭으로 추락,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민가 재산손실과 인명피해를 최소화(어린이 2명 2~3도 화상)한 것이다.

덕흥마을 앞 미나리 밭에 추락, 산산조각이 난 기체에서 뒤늦게 찾아낸 녹음테이프에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추락한다. 탈출하겠다. 전방에 마을이 보인다. 탈출이 불가...” 라는 이대위가 외친 마지막 육성이 녹음돼 있었다.

현재 마을 주민들은 이상희 대위 추모 행사를 해마다 상희공원에서 개최하고 있다.

(4) 『성남시 40년사』 편찬의 기초 자료로 활용

2013년 7월 1일, 시 승격 40주년이 된 성남시의 역사를 편찬하기 위한 <성남시사편찬위원회>가 발족되어(2012년 5월) 3년간의 편찬 작업 끝에 2014년 12월에 10권의 성남시40년사 완성

- 성남시사 편찬위원회 발족 이전부터 마을지 편찬 성과를 기초로 한 목차 편성 작업을 추진
- 성남시 관련 분야별 연구 전문 학자 목록 구축
- 성남시의 연혁을 조사 완료한 상태에서 시사편찬위원회 발족을 추진
- 성남시사 편찬실과 성남학연구소의 정례적인 회의와 수시 협의를 통한 조정

(5) 사라진 역사와 문화의 발굴

성남문화원에서 옛날 <동국여지승람> 편찬의 정신을 이어 받아, 해마다 발간 해 온 마을지 편찬사업이 <낙생마을지> 발간으로 끝났는데, 낙생은 곧 분당 구미동 지역과 서판교 지역에 해당되는 옛 광주군 낙생(樂生)면 지역을 말한다. 즉 복지사회를 의미하는 ‘영락장생(榮樂長生)’의 땅이다. 최근에 판교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이 지역에 구전되어 오던 역사의 많은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고구려와 백제시대의 무덤과 구석기 문화유적이 발굴 되어 오래 전부터 인류가 거주한 역사가 확인 되었다. 그리고 낙생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오가는 사람들이 꼭 지나가는 길목이었으니, 고려 말에 이곡(李穀)이 <청풍정기(淸風亭記)>에서 낙생역에 머물렀다고 한 기록을 비롯하여 훗날 왜(倭)나 동남아시아의 사신들이 서울로 가는 길에 낙생역에서 쉬어 갔던 곳이다. 옛날의 영화로왔던 시대의 역사와 현대에 와서 신 도시의 개발로 볼 때 영락장생의 땅이라고 하는 구전(口傳)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 지역에는 여러 가지 문화유산이 있다.

이 지역 문화유산 가운데에는 ‘낙생행궁(樂生行宮)’이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사라져 버렸다. 조선의 건국 이래 역대 임금이 성남지역에서 군사훈련 강무(講武)를 실시할 때나, 청계산과 문현산 등지에서 사냥을 하고 머문 곳이었다. 수만 명의 군사를 사열하고 임금은 탄천 주변이나 낙생역 앞 들판 또는 낙생행궁에서 머물기도 하였고, 세종임금은 온천에 갈 때에도 이곳을 지나다가 낙생에서 머물렀다. 낙생지역에는 저명한 역사 인물들의 묘소를 통해 우리 고장의 자랑스런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³³⁾

33) 낙생마을지 발간사

맺음말

이상에서와 같이 성남지역의 마을지 편찬 사업은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효과와 더불어 현대 사회의 생활상 등을 후대에 전해주는 인문지리서 성격을 띄고 있으며, 마을의 지명과 시설물 명칭 제정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를 위해 희생하거나 봉사한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도시에 외부로부터 이주해 오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고향 만들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원주민들에게도 자부심을 갖게 해 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흔히 성남시는 역사적 정체성이 없다고 한다. 또한 역사적 정체성이 무엇 이냐고 묻기도 한다. 그런데 마을 조사를 통해 얻어진 수많은 자료들은 성남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마을 조사에서 얻어진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당장에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성남지역의 여러 역사적 사실들은 당장에 활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문화와 역사도시로서, 또한 역사적 전통을 복원해 나가기 위한 과제의 설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최근 성남시립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마을 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들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